

말씀을 나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케 하는

# 현장신앙52주

## 제 2 권

### 제53과-제105과

목장교재, 개인묵상, 설교, 개인전도  
개척교회 설립을 위한 그룹 Study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약 1:22)

박희성 목사 제공. 이메일: [heessbakh@gmail.com](mailto:heessbakh@gmail.com)  
Korean Harvest Mission

구.월간광야. 현재사역: 읽어주는 책: [wonderfullifemagazineyoutube](http://wonderfullifemagazineyoutube.com)  
email: [wonderfullifemag@gmail.com](mailto:wonderfullifemag@gmail.com) [www.wonderfullifemagazine.com](http://www.wonderfullifemagazine.com)

# 목 차

제 53 과	성공의 정상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4
제 54 과	나는 성공한 사례가 한 번도 없다 6
제 55 과	모든 실수는 불태워졌다 7
제 56 과	하나님은 내 앞에 산을 옮기셨다 8
제 57 과	아프리카 임팔라 10
제 58 과	빛을 계속 태워라 11
제 59 과	지금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13
제 60 과	수잔나 웨슬리의 자녀교육 15
제 61 과	머리가 아프지만 약은 안 먹어 16
제 62 과	테레사 수녀의 삶 17
제 63 과	12명의 참석자들 18
제 64 과	목사님. 목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20
제 65 과	스펠존의 어린 시절 22
제 66 과	건강한 가정 23
제 67 과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다 24
제 68 과	어린이의 울음이 그쳤다 25
제 69 과	8.2의 지진 속에서 살아난 아들 27
제 70 과	고래에 삼켜진 남자 29
제 71 과	신장이 독소를 제거한다 31
제 72 과	허드슨 테일러의 겸손 33
제 73 과	고집과 오만이 만들어 낸 불상사 34
제 74 과	네 종류의 나무 35
제 75과	한 마리 불가사리의 생명 37
제 76 과	라이벌 가게 39
제 77 과	우리가 선 곳에 불을 지르자 40
제 78 과	크레인 박사의 한 가지 한말 42
제 79 과	한꺼번에 화내지 마세요 43

- 제 80 과 이런 순교가 있었다 45
- 제 81 과 누가 연을 날리나요? 47
- 제 82 과 위대한 장애인 들 48
- 제 83 과 나는 일생동안 어떤 일을 하는가? 50
- 제 84 과 상대방이 이야기 할 때 52
- 제 85 과 진정한 작품은 언제부터인가? 54
- 제 86 과 오렌지 두 개의 응답 55
- 제 87 과 회사가 왜 이렇게 엉망이야 57
- 제 88 과 사람과 낡은 차 59
- 제 89 과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교회 61
- 제 90 과 결코 고갈되지 않는 사랑 63
- 제 91 과 김 계용 목사는 이런 목회를 64
- 제 92 과 마지막 검투사대회 67
- 제 93 과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신다 69
- 제 94 과 거리의 가수가 최고의 가수로 71
- 제 95 과 불순종하면서 하는 기도 73
- 제 96 과 마음의 빈 공간 74
- 제 97 과 눈보라 속에서 살아난 아이 75
- 제 98 과 아이들은 듣는 대로 배운다 98
- 제 99 과 산을 옮긴 기적에 기도원 78
- 제 100 과 편견 81
- 제 101 과 한 가지씩 하라 83
- 제 102 과 타이타닉과 빙하 84
- 제 103 과 잿더미에서 찾은 결혼사진 85
- 제 104 과 내 새 차 BMW! 내 롤렉스! 87
- 제 105 과 개의 순종 89

## 제 53 과 성공의 정상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잠16:3).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눅12:15).

< 예화 >

테니스 스타 보리스 베커는 테니스계의 정점에 있었지만 자살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다. 이런 노래 가사가 있다. “그는 전에 워블던 대회에서 두 번이나 우승했어요. 그는 부자로서 필요한 모든 물질을 다 소유했어요”. 이것은 자살하는 영화배우와 팝스타들의 오래된 노래가사이다. 그들은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 공허했다. 베이커는 고백하기를 “나는 내면의 평화가 없었다. 나는 한줄 위에 꼭두각시였다.”

■깊이 생각하기: 성경적인 삶에서는 인간이 정해놓은 최종적인 목표라는 것이 없다. 최종적인 목표란 인간적인 욕심에서 산출된 계획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최고의 명예, 지위, 재물, 지식을 그 목표로 한다. 그러나 그 끝은 항상 허무와 불안뿐이다. 얼마 전 만해도 내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뛰어가고 있었는데 그들이 한 순간에 사라지고 내 앞에는 아무도 없다. 이제부터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다. 내가 이룬 모든 것의 뒤에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과 연결되어 있어야한다. 그러면 나는 안보이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만이 보인다.

유명한 소설 “The Eagle Has Landed”의 저자 잭 하이겐스(Jack Higgins)에게 질문했다. “정상에 도달하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이 질문에 그는 “정상에 도달하면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성공을 목표로 한 인생과 그런 사회는 항상 공허가 숨어있다. 이 세상은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삼기 때문에 사회구조 속에 공허라는 사탄이 숨어있다. 우리의 교육 속에는 오직 성공하라는 말만 있지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는 삶인가를 잘 가르치지 않는다. 다행이도 우리나라에도 돈을 많이

번 운동선수들이나 연예인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기아로 죽는 사람들, 물을 얻기 위해 아이들이 5km를 햇빛 아래서 걸어가 구정물 한통 길어오는 지역도 허다하다. 그런 곳에 우물을 파서 물탱크를 시설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도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산간지역이나 난민촌에 태양광 시설을 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공허가 있는 곳에 이런 선한 일들이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으로 남는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울까.

■ 서로 나누기: 나는 자녀들에게 성공하라는 말을 자주하는가요? 성공하라는 말 대신에 다른 말은 무엇인가요? 자녀들이 성공하지 못했을 때 어떤 말로 권면하고 싶은가요? 자녀들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본인에게나 다른 이들에게 흠을 본 적이 있는지요? 나는 자녀들의 신앙문제보다 성공을 위해 더 기도하고 있는가요?

■ 기도

## 제 54 과 나는 성공한 사례가 한 번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전 1:1-11).

### <예 화>

존 퀸시 아담스(John Quincy Adams)는 미국 역사상 그 누구보다 중요한 직책을 맡았다. 그는 대통령, 상원 의원, 하원의원, 유럽 주요 강대국 장관을 역임했으며 미국 혁명과 1812년 남북 전쟁으로 이어지면서 각종 행사에 다양한 역량을 발휘했다. 그러나 70세에 기록한 글에서 말하기를 “내 인생 전체가 실망의 연속이었다. 내가 했던 모든 일에서 성공한 사례를 한 번도 기억할 수 없다.

■깊이 생각하기: 인간이 생명이 있고 건강할 때는 이것저것 욕심을 부리며 오로지 꿈을 이루기 위해 달린다. 그러나 어느덧 나이가 들어 은퇴하고 육신의 힘이 쇠약해질 때 자기인생을 뒤돌아보게 된다. 인간이 100세를 살고 1,000세를 산들 뒤를 돌아보면 모두가 채워도 한없는 공간만이 남는다. 성공이 무엇이 길래 신기루 같은 그림자를 잡으려고 그렇게도 애를 쓰는가. 존 아담스의 고백은 우리 인간 모두의 고백이다. 전도서 기자 솔로몬은 황금 집에서 최고의 부와 권세를 누렸지만 그는 말년에 헛되고 헛되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서로나누기: 인생은 왜 허무한가요? 인생은 왜 가치가 있는가요? 나는 나의 인생 말년에 무엇을 남기고 싶은가요? 나의 마지막 침상에서 자녀들이나 내 배우자에게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요?

■기도

## 제 55 과 모든 실수는 불태워졌다

■하나님의 말씀: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계 2:18,19).

< 예화 >

뉴저지 주 웨스트 오렌지에있는 토마스 에디슨(Thomas Edison)의 제조 시설이 1914 년 12 월 어느 날 밤 화재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에디슨은 거의 1 백만 달러 상당의 장비와 그의 작업 기록을 잃었다. 다음날 아침 67 세의 발명가 에디슨은 그의 희망과 꿈의 불씨를 가지고 길을 건다가 이런 말을 했다. “재난은 가치가 있다. 우리의 모든 실수는 불 태워졌다. 그러나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깊이 생각하기: 나는 컴퓨터로 강의 준비를 할 때나 설교 준비, 잡지 원고 등 기타 중요한 계획을 정성을 다해 만들고 나서 작동실수로 지금까지 애써서 작성한 원고들을 다 날려 보낸 경험이 몇 번 있었다. 그런 후 몇 시간 동안 맥이 빠져 포기하려고 한 적도 있었지만 다시 용기를 내어 글을 쓰기 시작하면 의외로 먼저 원고 보다는 더 훌륭한 글을 쓸 때가 많았다. 실패, 손실 같은 단어는 누구든지 원치 않는 단어들이다. 그러나 한 평생을 살다 보면 느닷없이 그런 일들이 내 인생길에서 발생한다. 참으로 원하지 않는 필요악들이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그러한 것들은 다음의 성취를 위한 전조이고 선약일수 있다. 우리는 그럴 때 마다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가 묵상하면서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살피고 뉘우친 후에 다시 시작하면 좋은 날이 분명히 찾아온다.

■서로나누기: 나는 공을 들여 이룩한 작품이나 계획, 노력들이 아무데도 필요 없이 무너져 버린 경험이 있었는가요? 나는 실패한 후에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았던 경험이 있는가요? 내가 다시 시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느낌을 받았는가요?

■기도

## 제 56 과 하나님은 내 앞에 산을 옮기셨다

■ 하나님의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23).

< 예화 >

“주님, 저는 앞산을 이동 한 적이 없으며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동원 할 수 있는 모든 믿음으로는 작은 개미 언덕도 옮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믿음을 통해 나는 모든 고난의 산들이 사라진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청구서를 지불해야 할 때, 거기다가 심장마비까지 오고 걱정과 가슴 아픈 일들이 계속 증가되고 있을 때 주님이 해결해 주셨고 저는 주님이 어떻게 언제 그것들을 해결해 주셨는지 기억도 안 될 정도입니다. 주님은 문제 해결방법을 숨기시고 주님만이 하시는 비법을 사용하십니다. 나는 지금도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나는 산을 옮겨 본 적이 없습니다. 내 믿음이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주님은 항상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나는 내 삶속에서 산들이 있을지라도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나는 나의 산을 옮기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 깊이 생각하기: 인간에게는 누구나 작고 큰 산들이 있다. 인간은 걱정하는 존재이다. 그 만큼 나약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때때로 첩첩 산중을 홀로 걸어가는 것과 같은 외로움과 두려움을 경험 한다. 하나가 해결되면 또 하나가 다가오고 그것이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들이 이어져 온다. 테벳 산중 깊은 곳에 사는 사람들은 걱정이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들은 양이나 소, 카약 같은 짐승들을 기르기도 하고 가축들의 고기나 가죽을 가공하여 팔기도 한다. 또 어느 지역은 골짜기에서 흐르는 물을 연결하여 농사를 지으며 소박한 나날을 산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자녀들을 위한 걱정이 있었다. 자녀들은 더 이상 이런 희망이 없는 산골에서 살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며칠을 걸어 내려가 도시로 가면 중고등학교가 있고 기술학교도 있어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날마다 일도 안하고 조르기만 한다. 그래서 부모는 자기 집 가축 몇 마리를 팔아 학비와 등록금, 용돈들려줘 보낸다. 부모들은 도시로 나가서 살고 싶지만 무엇을 해먹고 살아야 할지 걱정이 되어 용기를 내지 못한다. 도시나 시골, 한국이나 미국 등 어느 나라에 살던 지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산을 바라보며 걸어간다. 저산을 어떻게 넘어가나, 라는 걱정을 가지고 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그 산 아래로 넘어가는 길이 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높은 산도 넘게 하시지만 때로는 산 아래로 통하는 지름길로도 인도하신다.

■ 서로나누기: 나는 과거에 산과 같은 걱정들을 해결한 적이 있는가요? 나는 날마다 넘어야 하는 작은 산들을 어떻게 넘고 있는가요? ? 나의 걱정 중에서 미래에 예상되는 문제로 걱정하는 것이 있는가요? 내가 실제로 걱정이 되는 오늘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나는 나에게 예상되는 산과 같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요?

■ 기도

## 제 57 과 아프리카 임팔라

■ 하나님의 말씀: “벧새다에 이르매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아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막 8:22-25).

< 예화 >

아프리카 임팔라는 3미터 이상의 높이로 점프 할 수 있으며 10미터이상의 거리를 한 번에 점프하며 달려갈 수 있다. 그러나 이 멋진 동물은 1미터 울타리 안에서 키운다. 임팔라는 자기발이 떨어지는 곳을 볼 수 없으면 점프하지 않기 때문이다.

■ 깊이 생각하기: 믿음은 우리가 볼 수없는 것을 믿고 행동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다.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이라는 허수아비 울타리 안에 갇혀서 더 높고 넓게 뛰지 못한다. 예수님은 왜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 하신 후 그를 고쳐 주었을까. 그 이유는 맹인에게 구체적인 믿음을 일궈주기 위함이며 그것은 눈에 바르는 안약(계3:18)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 맹인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인다고 했을 때 한번 더 안수하시어 온전하게 시각을 회복시키시었다. 예수님은 반쪽자리 사역을 하시지 아니하시고 완전한 사역을 하신다. 신자는 누구나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임팔라처럼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느낄 뿐이다.

■ 서로나누기: 나는 우리 안에 임펠라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요? 임펠라가 울타리 밖을 나가면 1미터 정도 높이 뛰고 10미터 정도까지 앞으로 꺾충 뛰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어떻게 풀이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에서 보여준 장님의 고백이 나의고백이라면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 기도

## 제 58 과 빛을 계속 태워라

■ 하나님의 말씀: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라”(마 5:16).

< 예화 >

노르웨이 해안가 어느 등대에 등대지기가 두 자녀와 함께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식량을 구하기 위해 먼 바다를 건너갔다. 그는 갑자기 발생한 폭풍으로 인해 등대로 돌아올 수 없었다. 날이 저물어 등대 불을 켜 때가 되었다. 누나 메리가 동생에게 “등불을 켜야 할 텐데 어떻게 하지? 우리는 지금 빨리 등불을 켜야 해” “우리는 키가 작는데 어떻게.” 동생이 말했다. 그러나 두 아이는 길고 좁은 계단을 올라 등불이 놓여 있는 탑 꼭대기로 올라갔다. 메리는 의자를 놓고 큰 반사경이 있는 램프에 손을 펴서 닿으려 했지만 너무 높았다. 그녀는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작은 의자를 들고 손전등을 키고 다시 계단을 더듬으며 올라갔다. 의자에 올라 큰 반사경에 손을 펼쳤지만 그 반사경은 그녀의 손에 아직 닿지 않았다. 동생 윌리가 말하기를 “그러면 내가 의자위에 앉을 테니까 발을 딛고 올라가면 되” 그녀는 동생의 어깨에 발을 딛고 올라가 큰 등불을 반사경 앞으로 높이 드니 빛은 먼 바다까지 비쳤다. 누나는 너무나 힘들어 팔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고 남동생도 어깨가 아파오기 시작했다. 동생은 언니에게 “계속 등을 들고 있어 나는 참을 수 있어”

■ 깊이생각하기: 하나님은 태초에 “빛이 있으라”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빛은 물리적인 빛도 되지만 그 빛은 하나님 자신이시며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인간의 영혼을 비추는 빛이다. 그 빛은 곧 구원의 소식이요 죄 사함의 소식이다. 등대지기의 두 자녀가 지혜와 힘을 다해 배들의 안전을 위해 등불을 반사경에 대고 힘들게 들고 있었다.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희생이 뒤따른다.

■ 서로나누기: 나는 어둠속에서 비쳐오는 하나님의 빛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나는 어떤 방법으로 빛을 비추고 있어요? 나는 힘들다고 등불을 내려놓은 적이 있어요? 나는 등불이 되고 싶은가요 반사경이 되고 싶은가요?

■ 기도

## 제 59 과 지금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데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데도다” (시 107:25-30).

### < 예화 >

허드슨 테일러(Hudson Taylor)가 중국에 갔을 때 그는 범선을 타고 항해했다. 남부 말레이 반도와 수마트라 섬 사이에 가까워지자 선교사는 그의 전용실 문을 급하게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테일러가 문을 열자 선장이 서 있었다. “미스터 테일러, 지금바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식인종 이교도 들이 사는 섬을 향하여 표류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람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함장님, 기도할게요. 항해를 계속하십시오.” 그러나 선장은 말하기를 “그건 말도 안 돼요 미풍도 없습니다. 게다가 선원들은 내가 미쳤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테일러의 주장 때문에 그는 할 수 없이 동의했다. 45 분 후 선장은 테일러 선교사를 다시 찾았다. 선교사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다. 선교사님, “이제 기도를 그만 뒤도 됩니다. 지금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배는 구사일생으로 바람을 타고 목적지 까지 갈수 있었다.

■ 깊이 생각하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다, 육지, 공중, 땅속에 사는 모든 만물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것의 움직임을 관리하신다. 히말라야 산맥들과 파밀고원 높은 산맥들 위에 쌓인 눈과 어름들은 누가 거기까지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저 멀리서 구경할 따름이지만 그 얼음과 눈들이 녹아 도시로 흐르면서 식수와 생활용수를 제공하고 여름철 무더위

를 식혀준다. 봄철 바람, 여름바람, 가을바람, 그리고 겨울바람들은 다 그 목적이 있다. 만물들은 그 바람 맞으며 생명을 얻고 아름답게 성장한다. 바다가 품은 그 깊고 넓은 물들은 어디서 왔으며 그 힘은 어떻게 생기는가. 바람이 있음으로 비행기도 날고 비도 오게 하고 구름도 이리 저리 옮기면서 비를 골고루 뿌려주면서 오곡백화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

■ 서로 나누기: 나는 바람의 신비함과 위대함을 어떻게 체험하고 있는지요? 나는 파도로 인한 바다의 위험을 체험해 본 적이 있는가요? 나는 비나 눈, 바람, 기온, 등 날씨를 위해 기도한 적이 있는지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요?

■ 기도

## 제 60 과 수잔나 웨슬리의 자녀교육

■하나님의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언 22:6).

< 예화 >

1. 아이가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억제하고 그의 영혼 구원을 위해 노력할 것.
2. 아이가 말을 할 수 있을 때에 즉시 기도를 가르칠 것.
3. 그가 울 때는 아무것도주지 말고 그가 공손하게 구할 때 좋은 것을 줄 것.
4. 거짓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가 자유롭게 고백 한 잘못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말고 그가 반항적이고 죄악적인 행위가 있을 때는 반드시 노출시킬 것.
5. 좋은 행동을 칭찬하고 보상하라.
6. 자녀에게 한 모든 약속을 엄격히 준수하라.

■깊이 생각하기: 사랑과 채찍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부모의 고민이다. 사랑만 하면 아이들이 버릇이 나빠지고 채찍을 자주 사용하면 아이들이 공포심에 놀려 산다. 웨슬레 어머니의 교육방법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참고 해야 할 아주 적절한 교훈이다. 어느 집은 사랑 보다는 소리치고 때리고 헐박하는 것을 더 많이 한다. 또 어느 집은 자녀들이 잘못해도 사랑으로만 대해준다. 그 결과 부모와 언니 오빠들의 권위가 서지 않아 더 망나니가 된다. 부모는 채찍에도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사랑하지만 채찍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한다.

■서로나누기: 나는 자녀들의 영적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나는 채찍과 사랑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고 있는가요? 나는 자녀교육에 어느 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가요?

■기도

## 제 61 과 머리가 아프지만 약은 안 먹어

■ 하나님의 말씀: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마 14:31).

< 예화 >

어떤 사람이 머리가 아파서 매우 고통을 겪고 있었다. 그의 친구가 와서 함께 약방으로 가자고 해서 따라갔다. 그는 약사의 추천을 따라 약을 받아들고는 그 설명서를 다 읽었다. 그리고는 그 설명을 다 믿고 있다는 표정을 짓고는 이 약이 가장 적합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 약을 다시 약장에 넣고는 가자고 했다. 그 사람은 머리가 계속 아팠다.

■ 깊이 생각하기: 약국을 찾은 사람은 약에 대하여 모두 읽고 알았지만 행동하지 않았다. 그는 그 후로 계속하여 자기의 병에서 자유로워지지 못했을 것이다. 행동하지 않는 죽은 믿음은 고통이 따른다. 누구든지 믿음이 있다고 생각되면 하나님의 뜻을 물은 후 확신이 오면 믿고 행동해야한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생활의 문제들을 위해 기도는 하지만 기도하고 난 후에 확신을 갖지 못하거나 다 잊어버린다. 오늘날 교회 밖 사람들도 예수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그것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원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 믿음의 헬라어 뜻은 "to live by"(무엇에 의하여 산다)이다. 크리스천들은 믿음에 의하여 산다. 믿음 뒤에는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 서로나누기: 나는 성경에 있는 사건들 중에 무엇이 믿고 무엇이 안 믿는가요? 나는 성경공부로 머리만 커지고 행동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성경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 사람들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 기도



## 제 62 과 테레사 수녀의 삶

■ 하나님의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 12:24).

< 예화 >

마크 핫필드(Mark Hatfield) 여성 상원의원은 테레사 수녀(1910년 8월 26일 ~ 1997년 9월 5일)와 함께 그의 사역지를 가보고 얼마나 성공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었다. 그들은 캘리포니아를 여행하여 병든 아이들이 마지막 날을 보내는 소위 "죽음의 집"이라는 곳과 가난한 사람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줄을 서는 진료소를 방문했다. 상원의원은 그곳에서 간호사들이 환자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이 포기한 환자들을 먹이고 간호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녀의 동료들이 매일 겪는 고통의 크게 압도되었다.

■ 깊이 생각하기: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에 대하여 자주 듣고 배운다. 그러나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희생과는 거리가 먼 것 같이 산다. 기독교는 희생의 종교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기독교를 대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조금이라도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겠다.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나 개인들이 희생의 현장에서 아름다운 삶을 보여준다. 우리는 나의 작고 큰 희생이 필요로 할 때 최소한의 희생이라도 바쳐야한다. 테레사는 자기개인을 위한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병들고 굶고 나약한 병자들을 위해 인생 전체를 희생했다.

■ 서로 나누기: 나는 어떤 방식으로 희생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가요? 나의 작은 헌신적인 행동에 열매를 맺고 있는 모습을 본적이 있는가요? 크리스천들의 방관 속에서 불쌍한 사람들이 방치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 기도

## 제 63 과 12명의 참석자들

■ 하나님의 말씀: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

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 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하심이라” (마 13:31-35).

### < 예화 >

영국 버밍엄의 폭풍우가 치는 밤에 허드슨 테일러(Hudson Taylor)는 3번 가에 있는 학교 열린 회의에서 강연을 해야 했다. 그를 초청한 사람은 것처럼 폭풍우가 치는 밤에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테일러는 계속 가겠다고 고집했다. “문지기 밖에 없어도 가야 해요.” 그날 밤 열두 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러나 그 모임에는 특별한 영적 힘이 함께해서 큰 은혜가 임했다. 후에 그곳에 참석 한 사람들의 절반은 선교사가 되거나 자녀를 선교사로 바쳤고 나머지는 앞으로 자기들은 중국 내륙 선교부의 충실한 후원자들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 깊이 생각하기: 세상 사람들은 큰 것, 많은 것, 화려한 것, 그리고 자리에 가득한 사람들을 원한다. 하나님은 가난한 교회, 평범한 사람들, 작은 예산, 작은 일군, 불모지, 핏박, 무관심, 무시, 방해 속에 값비싼 보석들을 숨겨 놓는다. 마치 버려진 밭에 감춰진 보화들과 같다. 모임이 기대 이하로 모였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자. 누가 실망하라고 했는가? 하나님이 실망하지 않으시는데 왜 인간이 실망하는가. 광야에서 자라나는 겨자나무 씨는 깨처럼 작은데 이것이 자라면 무성한 나무가 된다. 그 키는 종류에 따라서 2-10미터정도가 된다. 그 속에 새들이 몇 마리가 들어있는지 겉에서는 볼 수가 없다. 겨자씨는 전통의학에 사용

되며 밀가루에 누룩은 빵을 만드는데 필수적이다. 개척교회나 사업, 모임 등에서 규모가 작다고 낙심하거나 소홀히 취급하면 큰 것을 놓치게 된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작지만 아무도 그 나라를 건드리지 못한다.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1,200만명 정도밖에 안되지만 미국을 움직이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지난 40년간 역대 의장 15명 중 11명이 유대인이었다. 대형 금융사 골드만삭스와 JP 모건 등도 유대인이 세운 회사이며, 전 세계 거부의 약 1/3이 유대인이다. 그리고 노벨상 수상자중 20%정도가 유대인이다.

■ 서로 나누기: 내가 다수와 큰 것을 소유한 후에 무엇을 느꼈는가요? 나는 작은 것, 소수를 소유함으로 무엇을 느꼈는가요? 나는 소수와 작은 것에서 시작하여 크게 된 사람을 아는가요? 나는 다수와 큰 것으로 있다가 작게 된 사람을 보았는가요? 나는 작은 것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 보셨는가요?

■ 기도

## 제 64 과 목사님. 목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출 32 : 11~14, 30~35).

### < 예화 >

한 연로한 설교자가 주일 아침 예배 전에 한 젊은 집사 한 사람으로부터 큰 책망을 받았다. “목사님, 목사님의 설교와 목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 해 동안 교회에 추가 된 사람은 소년 한 사람, 로버트뿐입니다.” 이때 목사님의 눈에는 눈물이 촉촉하게 고였고 손이 바르르 떨렸다. “나는 집사님이 말씀한 것을 모두 공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내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날 목사님은 양 떼 앞에 섰을 때 마음이 무거웠다. 메시지를 마치면서 그는 사임하려는 강한 의지를 느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떠난 후 그 로버트 집사가 설교자에게 와서 “내가 열심히 교육을 받으면 설교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선교사도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목사의 눈에는 다시 눈물이 흘렀다. “아, 당신의 말이 나의 고통을 치유하고 있구나” 라고 연로한 목사는 말했다. “로버트, 이제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것을 내가 보고 있어. 너는 훌륭한 설교자가 될 것 같아, 주님의 축복을 빈다.” 몇 년 후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런던으로 돌아 왔다. 그는 자신을 목사라고 불렀다. 동네귀족들이 반가워서 그를 집으로 초대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잔인한 족장들에게까지 전도하여 크리스천이 되게 했다. 그 사람이 바로 몇 년 전 주일 아침에 옛 스코틀랜드 커크 교회 주일 아침예배 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던 로버트 집사였다.

■ 깊이 생각하기: 가나안 땅 탐사를 한 12명 중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난 후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협박을 가했다. 이스할의 아들이자 고탓의 손자이며 레위의 증손인 고라가 모세를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그 이유는 자기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3명의 르우벤 지파 사람, 곧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 벨렛의 아들인 온, 그리고 잘 알려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250명도 가담되어 있었다. 당신은 우리를 기쁘시고 비옥한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고 밭이나 포도원도 주지 않았소 당신이 우리를 끝까지 속일 작정이요? 우리는 가지 않겠소. 모세는 갈수록 비난과 협박을 받으며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했다. 모세는 이들 반란자들의 행위를 보며 하나님께 재앙이 내리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러나 결국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로 인하여 일어난 반란과 폭동으로 인해 전염병이 돌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고라의 무리들은 반란으로 인하여는 땅이 갈라져서 몰살당하고 만다. 모세와 아론의 기도는 이렇다. “하나님이시여,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여,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모든 사람에게 노하십니까?”. 설교자를 비난한 로버트 집사는 그날 설교를 통하여 회개했고 후에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다.

■ 서로나누기: 교회에서 회의 때마다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는 분들 중에는 세 종류가 있다. 첫째는 부정적인 사람이고 둘째는 긍정적인 사람, 그리고 셋째는 은혜파이다. 나는 어느 파인가요? 교회에서 다른 교인들에게 상처를 자주 주는 사람들은 왜 그런가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에게 습관적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같은 교인으로서 어떻게 대해 줘야 하는가요? 나는 과거에 어떤 문제로 목사님에게 근심을 안겨준 적이 있는가요?

■ 기도

## 제 65 과 스펔존의 어린 시절

■ 하나님의 말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눅 16:10).

< 예화 >

찰스 스펔존(Charles Spurgeon)은 매주 런던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설교한 세계적인 설교자이다. 그는 10 대 때 전도지를 나누어주었고 주일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사역을 시작했다. 그가 주일 학교에서 설교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말씀 사역을 크게 축복하셨다. 그는 시골 여러 곳에서 설교하도록 초대를 받았으며 모든 시간을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사용했다. 스펔존은 작은 일에 신실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큰 일을 맡겼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아주 시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작은 모임에까지 기꺼이 가서 설교하지 않았더라면 큰 건물에서 수천 명의 남녀에게 설교 할 특권이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 깊이 생각하기: 작은 씨 하나를 정성스럽게 잘 가꾸면 수백 배 수천 배로 증가된다.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목욕을 하라는 말에 분을 발하여 뿌리치고 돌아가려고 했다. 요단강에서 씻기만 하는 것은 작은 일이다. 회사에 날마다 아침 일찍 출근하여 청소를 열심히 한 사람을 사장이 보고 직원으로 채용한 사례도 있다. 교회에서 사찰로 충성하던 사람이 장로가 되고 좋은 자리에 마켓까지 열게 되었다. 스펔존이 시골 마다 다니면서 설교를 충실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보시고 큰 교회를 맡기신 것이다.

■ 서로나누기: 나는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다가 좋은 기회를 놓친 적이 있는지요? 나는 작은 일에 충성한 결과 큰일을 하게 된 경험이 있는지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 큰 것을 구하고 있는 가요? 작은 일에 충성하도록 기도하고 있는가요?

■ 기도

## 제 66 과 건강한 가정

■ 하나님의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엡 6:1-4).

< 예화 >

“Focus on the Family” 잡지에 의하면 500 가정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나타났다.

1. 원만한 의사소통과 경청. 2.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돕는다. 3. 가족 간에 서로 존중한다. 4. 서로의 신뢰감을 키운다. 5. 서로 시간을 나누며 책임을 분담한다. 6.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안 즉시 바른 길을 선택한다. 7. 신앙문제를 서로 나눈다. 8. 서로 사생활을 존중한다. 8. 위기 때는 서로 헌신적으로 돕는다. 9. 식사, 일, 오락 등을 서로 함께 나눈다. 10. 충분한 대화시간을 갖는다. 11. 신앙생활을 가장 위에 둔다.

■ 깊이 생각하기: 건강한 가정은 회개를 온전히 이룬 가정이다. 온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부끄럼 없이 설수 있어야 가족 간에 마음 문이 열려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지는 것이다. 건강한 가정은 각 가족원들이 먼저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신분을 온전히 깨닫고 지키도록 노력함으로 형성된다. 권위는 아버지와 어머니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원이 각자의 신분에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천적인 권위가 있다. 그것은 신성한 권위이다. 그것들이 가정에서 서로 귀하게 여겨질 때 건강한 가족이 된다. 그 후에는 위에서 열거한 11가지를 하나씩 지켜나가면 참으로 최고의 가정 될 것이다.

■ 서로나누기: 나는 나의 가정의 한 가족원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권위와 책임과 역할을 부여받았는가요? 나는 가족이 행복하다고 느낄 때는 언제였는가요? 나는 위에서 열거한 11가지 중에서 어느 점이 약하고 어느 점이 강한가요?

■ 기도

## 제 67 과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다

■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눅 18:28-30).

### < 예화 >

홍수로 황폐해진 뉴올리언스와 폭풍에 휩싸인 걸프포트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잃었다. 그들에게는 오직 절망과 슬픔만 남았다. 저녁 뉴스에 한 할머니를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왔다. 침수 된 뉴올리언스 거리와 어두운 바다가 비춰지면서 그녀의 고귀한 음성이 들렸다. 기자는 그녀에게 “당신은 어떻게? 어디로 갈 것인가요?” 그녀의 대답은 단순했다. “나는 내 인생 속에서 예수 한분을 만났어요.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갖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해요.” 홍수에 모든 것을 잃은 한 할머니의 말이다. 기자와 많은 사람들은 그 할머니의 충격적인 말에 그만 할 말을 잃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자체가 모든 것을 이미 잃었고 모든 것을 이미 얻은 것이다. 이 땅에 모든 크리스천들은 이미 하나님의 무한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 깊이 생각하기: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자기개인의 소유를 모두 포기하고 오직 주님의 제자의 길로 나선 사람들이다. 그들은 지금까지 가정에 경제적인 책임을 지고 살았는데 예수님의 뒤만 따라다니면 가족은 어떻게 살까 걱정할 수도 있는 입장이다. 거기다가 그들은 결국 순교까지 당했다. 이들 제자들의 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침묵을 지키셨다. 그것은 제자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무언의 약속에 속한다.

■ 서로 나누기: 나는 신앙적으로 세상의 욕망을 몇 퍼센트 정도 포기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요? 내가 어느 날 나의 모든 소유를 잃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무엇이든 기도할 수 있는가요? 뉴올리언스 할머니의 고백에 대하여 나는 어떤 느낌은 가지나요?

■ 기도



## 제 68 과 어린아이의 울음이 그쳤다

■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창21:17,18).

### < 예화 >

토니라는 어린 아이가 지하실에서 울면서 소리쳤다. 농구공을 가지고 놀다가 지하실로 공이 떨어졌기 때문에 찾으러 천천히 들어갔다. 그는 갑자기 공포심이 찾아와 아빠를 불렀으나 아빠는 조금 기다리라고 말했다. 지하에는 전등이 있으나 아버지가 스위치를 찾아야한다. 잠시 후 어린아이의 울음이 터졌다. 아이가 어둠속에서 길을 잃은 것이다. 지하에는 냄새도 나고 무섭기도 해서 아이는 겁을 더 먹은 것이다. 이때 아버지는 어린 아이를 향하여 “거기 가만히 서 있어, 아빠가 지금 내려가고 있어.” 아빠는 계단을 내려가면서 토니의 이름을 계속 부르며 그를 안심 시켰다. 아버지가 차차 자기 앞으로 가까이 다가온 것을 느낀 아이는 그제야 울음을 그치고 아빠! 하고 소리쳤다. “애, 토니, 괜찮아?” 몇 초 후에 불이 켜졌고, 토니는 농구공을 집어 들고 나와 유쾌하게 놀기 시작했다.

■ 깊이 생각하기: 아브라함의 첩 하갈은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광야로 쫓겨났다. 피약별이 강하게 내려쬐이는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다. 하갈은 아들이 목이 말라 우는 것을 보고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은 곧 응답해 주시고 그들은 광야에서 생존하면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된다. 어린아이가 공을 찾아야겠다는 집념으로 인해 컴컴한 지하실까지 들어갔지만 갑자기 길을 잃으면서 울기 시작했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고통과 부르짖음은 죽음에 직면한 절망이다.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홀로 고독하게 무엇인가를 해 보려고 노력할 때가 있다. 아직 하나님은 기억도 안한다. 그러다가 갑자기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다. 동서남북이 캄캄하고 곧 죽을 것 같다.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다. 이 세상에서는 나 홀로 서기가 안 된다. 우리는 이때 빨리 주님을

찾아야한다. 여태껏 홀로서기로 달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항상 나의 곁에 계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문제를 극적으로 해결해 주신다. 그는 나의 아버지이시며 어머니가 되신다.

■ 서로나누기: 나는 피약별이 내려 쪼이는 광야에 서 있음을 느껴 본적이 있었는가요? 내가 흑암과 같은 절망 중에서 불안해 할 때 주님을 어떻게 느꼈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길에 빛이 되심을 어떻게 경험했는가요? 하나님이 어느 날 내 곁에서 떠나셨다고 느낀 적이 있는가요? 지금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요?

■ 기도

## 제 69 과 8.2의 지진 속에서 살아난 아들

■ 하나님의 말씀: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와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사 12:2,3).

< 예화 >

1989년 8.2의 대 지진으로 아르메니아 한 마을이 거의 평평해졌고, 4분도 채 지나지 않아 3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혼란과 파괴의 한 가운데서 아버지는 아들의 학교로 달려갔다. 그러나 그는 학교부근에 도착하자마자 무너진 잔해 더미를 발견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문득 아들이 그 무너진 건물 속에 있을 것으로 생각됐다. 그곳은 아들의 반이 있던 건물 뒤쪽이었다. 아버지는 평상시에 아들에게 학교가 끝나면 항상 그곳에 있으라는 약속을 했다. 이 약속은 그곳에 무너진 잔해들을 파헤치게 했다. 그가 정신없이 돌무더기를 파헤치고 있는데 소방서 서장이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의 아들은 이미 죽었을 거예요. 더 이상 파지마세요. 너무 늦었어요! 그는 이미 죽었다니 까요. 우리는 당신을 도울 수 없어요. 집으로 가세요. 지금 여기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하면서 그를 잔해 더미 위에서 끌어 내리려고 했다. “지금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고 있어요. 당신은 지금 위험하단 말이에요. 빨리 집에 가세요!. 당신은 지금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어요. 우리가 다 처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12시간, 24시간, 36시간, 그리고 38시간에 걸쳐서 돌무더기들을 파헤쳤다. 드디어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는 비명을 질렀다, 아르몬드! 아르몬드! 그때 ‘아빠’라는 아들의 목소리가 바위틈에서 가냘프게 새어나왔다. 결국 아버지의 희생적인 열정이 아들을 살렸다.

■ 깊이 생각하기: 평상시에 아버지와 아들간의 약속이 매우 중요했다. 하나님이 그 아버지에게 주신 지혜이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장래까지 내다보시고 나와 약속을 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인생을 책임지신 분이라는 것을 약속하신다. 그러나 가끔 인간은 다른

소리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한다. 만약에 지진 현장에 있던 소방서 직원의 말을 따랐다면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순간적인 판단의 오류로 생명이 좌우될 수 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된 길로 인도하신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사 12:2,3).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을 어기지 않는 이상 그 자리에서 하신 그 말을 끝까지 지키신다.

■ 서로나누기: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순간적인 판단을 잘 받아드림으로 유익을 얻은 적이 있는가요? 나는 인간적인 판단의 오류로 손실을 가져 본 적이 있는가요? 나는 날마다 작고 큰일에 있어서 결정할일들이 많은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리곤 하는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는 것은 무엇인가요?

■ 기도

## 제 70 과 고래에 삼켜진 남자

■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삼 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욘 1:14-17).

### < 예화 >

1891년 2월, 어떤 사람이 대서양의 포클랜드 제도에서 고래 사냥을 하고 있었다. 큰 고래를 쫓는 동안 한 사람이 거대한 고래에 삼킨바 되었다. 그 사냥꾼들은 고래를 죽이기 위해 계속 쫓아다녔지만 익사를 두려워 더 이상 투쟁할 수가 없었다. 실종된 사람은 제임스 바틀리라는 사람이었다. 선원들은 동료의 상실에 큰 슬픔에 빠졌다. 그러나 밤 자정이 될 때에 드디어 80피트 길이의 80톤짜리 고래를 죽였다. 다음날 아침, 그들은 갑판으로 그 고래를 올려 고래를 살피는 도중에 배에서 꿈틀거리는 움직임을 포착하고 즉시 배를 가르기 시작했다. 고래의 위장이 열렸을 때 실종자 바틀리는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다. 즉시 꺼내서 바닷물로 목욕을 시킨 후 2주 동안 선장의 숙소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는 정신적으로 안정이 안 되어 혼미한 상태였으나 열심히 치료를 받은 지 4주 만에 완전히 회복되었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었다. 그는 고래 배에서 산출되는 산에 의해서 얼굴은 희게 표백되었고 목은 고래의 위산에 의해 흉터가 생겼다.

■ 깊이 생각하기: 요나가 고래 배속에서 밤낮 3일을 지낸 후 고래가 그를 육지로 토해낸 사건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이뤄진 특별한 메시지가 담겨있었다. 혹시 요나도 고래의 위에서 나온 산으로 인해 피부가 희게 표백되고 목 부분에 상처가 생기지 않았을까.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요나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으로 상처가 전혀 없이 육지로 나온 것 같다. 그러나 고래 위에서 3일

동안 사람이 지낸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 위에는 고래가 먹은 잡다한 음식물들이 함께 섞여 있었을 것이다. 그는 간신히 호흡정도만 할 수 있는 그곳에서 요나는 죽는다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어김으로 벌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큰 회개를 했다. 그러자 자기 몸이 어둠을 뚫고 해변으로 던져졌다. 고래의 뱃속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을 상징한다. 이때는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해야 사는 급박한 상황이다. 여기서 시간이 지연되면 생명이 위험하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 자기 죄를 속히 회개해야 살아나는 경우도 있다.

■ 서로나누기: 나는 요나 같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내 뜻대로 살다가 고래에게 삼킨바 된 것 같은 경험이 있는가요? 고래의 뱃속 생활이 어떠했는지 상상해 보세요? 요나는 고래뱃속에서 목적지 니느웨로 나왔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고 있는지요?

■ 기도

## 제 71 과 신장이 독소를 제거한다

■하나님의 말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엡 5:26,27).

< 예화 >

26 세의 저메인 워싱턴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일을 했다. 그는 단지 친구라고 부르는 한 직장 여성에게 중요한 신장을 제공했다. 저메인은 워싱턴 D.C. 고용 서비스 부에서 그 여자와 함께 일하기 시작했을 때 23 세의 미셸 스티븐스라는 여인을 만났다. 그들은 휴식 시간에서 서로 점심을 먹고 잡담도 나누곤 했다. 스티븐스는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나는 11 개월 동안 신장 기증자 대기 명단에 있었는데 모든 희망을 잃었어요” 그녀는 신장 투석기에서 일주일에 3 일, 하루에 3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우울한 지 저메인에게 말했다. 그는 만성 피로와 기절을 겪었고 관절통에 시달렸다. 저메인은 그 여자가 이미 미소를 잃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내 눈앞에서 친구가 죽어가는 것을 봤어요.” 고혈압을 앓고 있는 스티븐의 어머니는 신장을 기증 할 자격이 없었다. 그리고 그녀의 두 형제는 신장 기증을 꺼려했다. 스티븐스는 말하기를 “나는 이해해요. 그들은 나를 매우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너무 두려워하고 있어요.” 드디어 1991 년 4 월 워싱턴 병원 센터의 수술의사가 저메인의 사타구니 동맥에 카테터(catheter)를 삽입하는 고통스러운 시술로 시작되었다. 그런 다음 이식에 적합한 지 확인하기 위해 X- 레이 촬영을 위해 카테터를 통해 그의 신장에 염료를 주입했다. 일주일 후, 배꼽에서 등 중앙까지 거의 15 인치 길이의 절개가 이루어졌다. 그들은 수술 후 5 일 동안 입원하고 퇴원했다. 오늘날 스티븐스와 워싱턴은 완전히 회복되어 “우리는 적어도 일주일에 두 번 조깅을 하고 있고요 한 달에 세 번, ‘감사 점심’이라고 부르는 모임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아름다운 우정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귀한 것을 간단히 잊어버리고 싶지 않아요.” 오늘날까지 사람들은 저메인이 왜 그렇게 했는지 궁금해 하고 심지어 그의 정신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한갓 우정의 친구가 신장을 줄 용기를 어디에서 찾았는지 묻곤 한다. 그러나 그의 대답은 회의론자들을 진정 시켰다. “나는 그것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했고 그의 응답으로 이것을 실천한 것입니다.”

■ 깊이 생각하기: 친구간의 우정은 낭만적인 것이 있다. 그러나 친구가 죽음 직전에 있을 때 무엇을 도와야겠다는 시점에서는 대부분이 자신감을 갖지 못한다. 예수님은 인류전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주저 없이 머리에 가시관과 옆구리에 창을 받으면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받으셨다. 신장은 우리 몸에 축적되는 독을 처리하고 제거한다. 그 과정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독살시킨다. 많은 사람들이 매일 신부전으로 죽는다. 우리 몸의 독은 자연 처리 될 수 없으며 그 독은 결국 혈류로 침투하여 우리를 죽일 수 있다. 미국의 질병 통제 센터는 미국 성인의 17%가 20 세 이상에서 신장병이 생긴다고 한다. 60세 이상의 미국인은 40%까지 증가하고 매년 약 4십만 명의 미국인들이 신부전을 치료하고 있다.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 신장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말한다, 그들의 신체는 천천히 내부에 구축된 독을 축적하고 있었으며 의사들이 이 문제에 대해 말했을 때, 대부분은 살기 위해 의사의 조언을 받아들인다. 우리는 영의 신부전증을 없애기 위해 독소를 제거해야한다. 여기에特效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음 받고 성령의 불로 태움을 받는 것뿐이다. 죄를 지었을 때 그 독소가 온 몸으로 깊이 스며들기 전에 빨리 걸러내어야 한다.

■ 서로 나누기: 나는 말씀을 읽다가 나의 잘못에 대하여 책망을 받은 적이 있는가요? 나는 말씀을 읽다가 어떤 선한 일을 행동으로 옮길 것을 요구받은 적이 있는가요? 나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의 독소가 계속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체험했는가요? 나는 말씀에 거스리는 언행이 종종 발생하는데도 그대로 묻고 지내는가요?

■ 기도



## 제 72 과 허드슨 테일러의 겸손

■ 하나님의 말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벧전 5:5).

### < 예화 >

두 여성이 상하이에서 말을 주고받았다. “허드슨 테일러가 그의 많은 업적으로 인해 사랑을 하고 싶을까?” 한 여인이 물었다. 그리고는 테일러의 아내 마리아에게 그것에 대해 물어보기로 결정했다. 어느 날 테일러 부인이 남편에게 당신이 지금까지 한 일에 대하여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가요?”라고 물었다. 그때 테일러는 “무엇에 대해 자랑스럽단 말이지?” “당신이 한 모든 일에 대해서 말이에요” 테일러는 아내에게 대답하기를 “나는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몰라요.”

■ 깊이 생각하기: 겸손이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 나타내는 것이다. 그 이하가 되면 그것은 비겁이고 그것을 지나치면 교만이다. 겸손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을 최선을 다해 발휘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겉으로는 온유했으나 유대 지도자들을 향한 질책에서는 매우 날카롭고 강했다. 이 세상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집단은 대개가 기독교인들이다. 기독교인들은 겉으로는 겸손을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겉으로는 약하게 보이나 위기가 오면 생명을 내걸고 끝까지 싸운다. 그런 힘은 겸손한 신앙인으로 부터 나온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들과 함께 일 하신다.

■ 서로나누기: 나는 나의 겸손을 어떻게 표현하는가요? 겸손한 사람들이 때로는 배우자나 주변사람들로부터 가끔 비판을 받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내 주변에서 능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돈과 명예도 있지만 겸손한 사람을 아는 지요? 신자들 간의 겸손을 어떻게 표현해야 좋은가요?

■ 기도

## 제 73 과 고집과 오만이 만들어 낸 불상사

■ 하나님의 말씀: “주 만군의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렘 50:31).

< 예화 >

1986 년 여름, 러시아 연안 흑해에서 두 척의 배가 충돌했다. 수백 명의 승객이 아래 얼음물에 던져지면서 사망했다. 사고 원인이 밝혀지자 재난 소식은 들은 사람들을 더욱 경악하게 만들었다. 바다는 노을이 지면서 빨리 어두워지고 있는데 두 여객선이 서서히 마주보고 있었다. 웬 일인지 어느 한쪽도 피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레이더 오작동이나 짙은 안개와 같은 기술 문제도 아니었다. 원인은 선장들의 완고함과 교만이였다. 각 선장은 근처에 있는 다른 배들이 어디있는지도 알고 있었다. 이 두 배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었지만 어느 선장도 상대방에게 양보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너무 교만과 완고함이 컸다. 그들의 배가 너무 가깝게 접근하고 있다고 느낄 때는 너무 늦었다. 결국 피할 겨를도 없이 거창한 소리와 함께 두 배는 충돌하여 바다에 가라앉고 말았다.

■ 깊이 생각하기: 교만하고 완고한 자는 이 세상에서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 사람은 있으면 더 자랑하고 없어도 자랑한다. 이 사람은 훈수와 권면은 아예 받아드리지 않으며 패하여도 그 이유를 상대방에게 돌린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격과 감정을 상관하지 않고 생각나고 느끼는 대로 말하고 행동한다. 그러는 동안에 주변 사람들은 다 떠나고 홀로 외롭게 남는다.

■ 서로 나누기: 내가 아는 교만하고 완고한 사람들의 언행은 어떤가요? 나도 때로는 교만과 완고함이 생기는데 어떤 때인가요? 부부간에 서로가 완고함과 교만으로 다툰 경험이 있는가요? 나는 교만하고 완고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는가요?

■ 기도

## 제 74 과 네 종류의 나무

■ 하나님의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 22:6).

< 예화 >

어느 날 한 스승이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다. 어느 지점에 이르자 스승은 길가에 네 종류의 나무를 가리키며 첫째나무, 둘째나무, 셋째나무, 넷째나무를 알려 주었다. 그런 후 제자에게 “저 첫째 나무를 뽑아라” 제자는 그 나무를 쉽게 뽑았다. 그 나무는 아주 어린 나무로 뿌리도 얇게 내렸기 때문이다. 스승은 그 다음 둘째 나무를 가리키며 “가서 뽑아라” 라고 하자 제자는 좀 힘들었지만 힘을 주어 뽑으니 쉽게 뽑혔다. 스승은 그 다음 셋째 나무를 가리키며 “가서 뽑으라”고 하신다. 제자는 가서 뽑으려 하니 힘들어 뽑아지지 않는다. 스승은 그 다음 넷째 나무를 가리키며 “가서 뽑으라”고 한다. 그러나 그 나무는 너무 커서 앞사귀조차 흔들리지 않았다. 스승은 제자를 조용히 불러 각 나무에 대해 설명을 했다. 그 나무들은 곧 인간과 같다. 인간이 어렸을 때는 그 나쁜 습관을 쉽게 고칠 수 있으나 점 점 자라면서 그 습관을 고치기가 어려워진단다.

■ 깊이 생각하기: 어린아이들에게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습관을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많은 자녀들이 어렸을 때 TV나 비디오, 컴퓨터 속에서 자란다. 거기에는 재미와 지능 훈련과 거친 장면들도 보여준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아무런 지침 없이 그대로 방치해서 키운다면 그들의 누구를 닮게 될까. 유대인 가족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유대인 가족교육위원회에서 만든 규율이 있다. 가족은 유대인 학습을 위한 필수 기관으로 권한을 부여할 것. 가족이 유대인 의식을 강화시키는 장소로 인식하도록 노력할 것. 교육당국은 각 부모에게 유대인 생활을 위한 기술, 정보, 소도구 및 레퍼토리를 제공한다. 유대인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기 보다는 행동을 강조할 것. 유대인이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에 헌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을 제공한다. 유대인을 위한 교과내용을 중심으로 활동을 집중할 것. 교육기관에서 배운 자료들을 가정교육으로 연계시켜 다른 가족과 함께 연합하여 배우고 성전 내에서도 큰 결속력을 쌓도록 강조한다. 지금까지 소개한 지침들이 오늘날의 이스라엘을 만들고 있다. 가족이 국가와 사회의 교육센터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가정교육을 통하여 위대한 인물들을 배출한다. 그래서 노벨 수상자의 30%가 유대인이다.

■ 서로 나누기: 유대인들의 가정교육과 한국인들의 가정교육이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나는 유대인 가정교육에서 어떤 점을 본받고 싶은가요? 나는 지금까지 자녀들을 위한 신앙교육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가요?

■ 기도

## 제 75과 한 마리 불가사리의 생명

■ 하나님의 말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눅 15:20-24).

### < 예화 >

어느 한 노인이 새벽에 해변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 노인은 그의 앞에 있는 한 청년이 불가사리를 한 마리씩 집어 바다에 던지는 것을 보았다. 그는 청년에게로 다가가 말하기를 “청년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요?” 그가 대답하기를 “바닷가로 밀려 나온 불가사리가 아침 햇살에 방치되면 죽을 것 같아서 다시 바다로 집어 던지고 있습니다”. 그 해변은 몇 마일이나 계속되었고 그 곳에는 수백만 개의 불가사리가 있었다. 노인은 말하기를, “당신의 노력이 무슨 특별한 일이 되겠는가요?” 청년은 또 다른 불가사리를 집어 넘실대는 바다로 멀리 던지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일은 어리석은 것 같지만 그 한 마리 한 마리 불가사리에게는 내가 생명의 은인이 되고 있어요”.

■ 깊이 생각하기: 이 세상에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 한 두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별로 슬픔을 나누지 못한다. 한 생명의 가치는 온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우리들의 자식들이 귀한 것과 같이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이 너무나도 귀하다. 하나님은 지금도 탕자와 같이 길 떠난 한 영혼을 찾기 위해 온 세상을 다니신다. 우리 주변에 ‘하나’가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그들을 도와야겠다.

■ 서로 나누기: 나는 주변에서 탕자가 돌아온 실례를 알고 있는가요? 나는 예배시 새 신자를 소개할 때 마다 얼마나 기뻐했는가요? 나의 가족

이나 친척들 중에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가요?

■ 기도

## 제 76 과 라이벌 가게

■ 하나님의 말씀: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잠 14:30).

< 예화 >

두 명의 상점 주인은 서로 격렬한 라이벌이었다. 그들의 상점은 서로 길 건너편에 있으면서 손님들이 몇 명이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매일 추적하면서 질투에 차 있었다. 이쪽에 손님이 생기면 라이벌에게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어느 날 밤 한 천사가 꿈속에 한 가게 주인에게 나타나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뤄 주겠다. 너는 부자가 되는데 너의 가게 건너편 사람은 항상 너의 두 배를 받을 것이다. 너는 길고 건강한 삶을 살겠지만 그 사람은 너 보다 두 배나 더 오래 살 것이다. 오늘 너의 욕망은 무엇이나 내가 너의 소원을 다 이뤄주겠다.” “네 요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의 한쪽 눈을 멀게 해주세요!” 결국 그 시기의 사람은 한쪽 눈이 멀었다. 꿈을 꾀는데 그는 상대방을 축복한 천사의 말이 잊히지 않았다.

■ 깊이 생각하기: 평화는 모든 선의 복합체이다. 마음의 평화를 얻기란 그렇게 어려운 것이다. 아무리 장사가 잘되고 돈이 많을 지라도 아침마다 건너편 가게에 손님들이 자주 드나드는 것을 보면 그 마음속에 시기가 발생하여 평화가 깨진다. 성경에는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라고 했다. 상대방이 나보다 더 잘되는 장면을 보고 축하하고 기뻐하는 그 사람은 다른 이들 보다 평화(평온)를 더 누리고 산다.

■ 서로나누기: 나는 상대방이 잘될 때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지요? 상대방에 대한 시기심이나 미움을 없애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시기심을 끝까지 가지고 있을 때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떻게 되어 가는지요? 시기심의 원인은 어디서 시작되는지요?

■ 기도

## 제 77 과 우리가 선 곳에 불을 지르자

■ 하나님의 말씀: “그 때에 세레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마 3:1,2).

< 예화 >

미국의 개척자 일행이 더 나은 곳을 찾기 위해 황소가 끄는 수레를 타고 긴 여행을 떠났다. 그들은 어느 날 서쪽에서 긴 연기가 초원을 가로질러 수 마일에 걸쳐 뻗어나가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렸다. 마른 풀이 맹렬하게 타 오르고 빠르게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들은 전날 강을 건넜지만 불꽃이 그들에게 닥 치기 전에 다시 건너온 강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했다. 어린아이들은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다. 그런데 여행자중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번쩍었다. 그는 말하기를 우리 뒤에 있는 풀에 불을 지르자고 소리를 질렀다. 그 불은 빠르게 타 넓은 공간을 확보하게 하게 되었다. 어린아이가 겁에 질려 말하기를, “이제 우리는 살 수 있나요?” “그럼 걱정 마, 내 아이 야, 우리는 불이 났던 곳에 서 있기 때문에 불길이 우리에게 도달 할 수 없어!” 라고 대답했다. 지도자는 모두 이쪽으로 빨리 이동하라고 소리쳤다. 모두들 서둘러 그 탄 자리로 들어왔을 때 불길은 그 자리를 피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일행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그 위기를 피하게 되었다.

■ 깊이 생각하기: 신약을 여는 메시지는 “회개하라”이다. 구약에서는 모세의 율법을 범한 자에게 몇 배 변상하는 것과 짐승의 희생을 요구하지만 신약에서는 마음의 회개를 강조한다. 구약의 번제는 의식에 의존하는 불안정한 회개이지만 신약의 회개는 영, 혼, 몸,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온전한 회개이다. 내가 선 자리를 먼저 태운 것이 죽음의 큰 화에서 면하게 된 것이다. 자신의 죄를 성령의 불로 모든 죄를 태움 받는 진정한 회개가 온전한 구원을 이룬다.

■ 서로나누기: 나는 어느 정도의 회개를 경험했는가요? 회개한 후에 마음의 상태는 어떠했는가요? 교회에 헌금 많이 내고 전도 열심히 하고



십일조 잘 내고 주일성수 하면 회개한 것과 마찬가지로요? 철저하게 회개한 것을 후에 또다시 죄를 지을 수 있는가요? 같은 회개를 반복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기도

## 제 78 과 크레인 박사의 한 가지 한말

■ 하나님의 말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마 19:5,6).

### < 예화 >

크레인 박사에게 이혼에 관해 조언을 구하려고 한 여성이 찾아왔다. “저는 남편이 미워서 이혼해야 할 것 같아 박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좋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를 다치게 하고 싶어요” 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크레인 박사는 “그렇다면 한 가지 할 말이 있는데 꼭 그렇게 해 보겠습니까?” “네, 하지요” “오늘 집에 가자마자 남편을 만나면 그의 장점만을 골라 칭찬을 계속 해보세요. 한번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 칭찬해 보세요. 그리고 ‘당신은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진심으로 그렇게 말해 보세요. 상대방이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요.” 몇 달 후 그 여인은 크레인 박사를 찾아와 모든 것이 잘되고 있다고 고백하였다. 크레인 박사는 말하기를, “그러면 이제 이혼을 해 보겠습니까? 지금이 이혼을 신청할 때입니다.” 여인은 놀란 표정으로 “이혼을 여? 저는 이혼을 안 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남편을 사랑하는 걸요”

■ 깊이 생각하기: 우리들의 결혼 생활은 좀 삭막하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매주 배우면서도 당연히 크리스천으로서 해야 할 칭찬과 사랑을 잊고 산다. 잊어버린다는 것, 말할 기회를 놓친다는 것,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들이 부부관계를 무감각하게 만든다.

■ 서로나누기: 나는 지금까지 이혼하겠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고 싶었는가요? 내가 이혼하자고 말 할 때는 어느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지금까지 오랫동안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 기도

## 제 79 과 한꺼번에 화내지 마세요

■ 하나님의 말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엡 4:26,27).

< 예화 >

남 캘리포니아에서 두 남자가 주차장에서 차 싸움이 벌어졌다. 주차장에서 상대방 차를 양보 없이 차단 한 것으로 인해 분노의 싸움이 벌어졌다. 머리가 뜨거워진 두 남자들은 분노에 휩싸여 주차장에서 속도를 내고 쫓으면서 다른 운전자들의 기분까지 상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들은 아랑곳없이 뒤엉킨 주차장을 이리저리 곡예운전 하면서 피하다가 엉뚱한 길로 빠지게 되었다. 그들은 화가 더 상승하면서 운전은 더 거칠게 되었고 주변의 차들과 여러 번 충돌 위험을 겪었다. 두 운전자의 싸움은 그치지 않았다. 서로 핸들을 가지고 이리 꺾고 저리 꺾고 하면서 싸우는 동안 핸들을 통제할 수가 없어지자 근처 보도에 있던 어린 소녀를 치어 숨지게 했다.

■ 깊이 생각하기: 화는 불행을 초래한다. 화를 절제하는 방법 10가지를 소개한다. 1) 두 사람 모두 한꺼번에 화를 내지 말자. 두 사람이 동시에 화를 내는 것은 자기 집에 돌이서 불을 지르는 것과 같다. 2) 집에 불이 나지 않는 한 서로에게 소리를 지르지 말자. 3) 논쟁이 시작될 때 내가 틀렸다고 양심이 말할 때는 먼저 논쟁을 그치자. 4) 상대방을 비판하고 싶으면 포용하는 자세로 하자 5) 말다툼하다가 상대방의 과거 실수를 절대로 꺼내지 말자. 이는 상대방의 분노를 갑절로 상승시킨다. 6) 잠들기 전에 나도 화를 풀고 상대방의 화도 풀어주자. 7) 밤에 잘 쉬도록 가벼운 인사를 하자. 8) 내가 실수를 했거나 지나쳤다고 생각되면 용서를 구하자. 9) 화날 일이 생기면 화내기 전에 어떤 말로 표현해야 될 가를 생각하자. 10) 하나님께 다시는 화를 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하자.

■ 서로나누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화를 몇 번 냈을까요? 화를 낼 때 받은 상처는 얼마나 오래가는가요? 화를 낸 후 무슨 생각을 했

는가요? 나는 요즘 화를 더 내는 편인가요? 화를 근본적으로 절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기도

## 제 80 과 이런 순교가 있었다

■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찢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 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행 7:54-60).

< 예화 >

나이지리아 어느 마을에서 기독교인 남녀 3-4명을 동네 빈 공터로 불러내어 길가에 앉혔다. 조금 있더니 모슬렘 청년들이 몇 사람이 왔고 동네 사람들도 수 십 명이 모여들었다. 몇 명에서 나무 가지들을 여기저기서 주어와 수북하게 쌓고는 불을 지르더니 기독교인들을 사정없이 때리고 불속으로 밀쳐 넣었다. 크리스천 청년들이 불속에서 일어서면 발로 차 쓰러뜨리고 엎으러 트리고 발로 짓밟았다. 그런데 한 가지 신기하고도 깊은 감동을 받은 것은 그 기독교인들이 불구덩이 속에서도 어느 한 사람도 도망가려하지 않았고 비명 지르는 사람도 없었고 묵묵히 죽어가는 것이었다. 너무나 위대한 죽음을 보았다. 무슬림 동네사람들은 그저 쳐다보기만 했다.

■ 깊이 생각하기: 나이지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순교자들을 많이 내는 나라이다. 지금도 아마 계속 순교자를 내고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그 동영상 장면을 보면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담대한 것인가에 놀랄 것이다. 스테반의 순교를 실감 있게 느끼게 한다. 나이지리아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날 순교자들은 시골 가난한 동네 사람들이다. 그들은 전도를 받고 오직 예수만 좋아했던 사람들이다.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계급장 하나 따려고 은근히 허세를 부

리고 나를 나타내려는 사람은 직분이 오히려 그들의 신앙을 해치는 것 뿐이다. 그 순교자들은 지금 하늘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하늘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통감한다.

■ 서로 나누기: 기독교인들이 순교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에 그 심정들이 어떠할까를 생각해 보셨는가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어떤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왜 순교를 허락하는가요? 스테반의 순교 후 핍박자 사울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요? 스테반의 순교 사건 후에 초대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요?(행8:1-8).

■ 기도

## 제 81 과 누가 연을 날리나요?

■ 하나님의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8:26-28).

### < 예화 >

어떤 이가 연을 날리는 소년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

누가 연을 날리나요? 내가 연을 날립니다.

누가 연을 날리나요? 바람이 연을 날립니다.

누가 연을 날리나요? 실이 연을 날립니다.

누가 연을 날리나요? 모두 틀렸습니다. 그리고 모두 맞았습니다. 모두 함께 연을 날립니다.

■ 깊이 생각하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돕고 계신다. 성령의 역할은 마치 연을 날리는 것과 같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 나르도록 이끄신다. ‘연’이 공중에 균형 있게 높이 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잘 움직여 줘야한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완성하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협력자들이 모여 서로 기쁨으로 도와야한다. 교회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지혜를 모아 더 아름다움을 창조해 가는 곳이다.

■ 서로나누기: 나는 교회에서 혼자 봉사할 때 어떤 장단점을 느꼈는가요? 다른 협력자와 같이 일할 때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성령께서 함께 하는 봉사와 나 혼자 하는 봉사의 차이점을 느껴 보셨는가요? 나는 부족한 점이 많아 교회봉사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해 보았는지요? 나는 연을 날리면서 어떤 경험을 했는가요?

### ■ 기도

## 제 82 과 위대한 장애인 들

■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뻗뻗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 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출 4:10-12).

### < 예화 >

건전한 육체, 뛰어난 정신, 좋은 문화적 배경, 엄청난 돈, 훌륭한 교육 등 어떤 것도 성공을 보장하지 못한다. 부커 T. 워싱턴은 노예로 태어났다. 토마스 에디슨은 귀머거리였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문맹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로드 바이런 경은 클럽 발(한쪽발이 안쪽으로 구부러진 것)이었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은 결핵에 걸렸다. 알렉산더 포프는 꼽추였다. 넬슨 제독은 단 한 눈만 가졌다. 줄리어스 시저는 간질 환자였다. 루이 파스퇴르도는 근시가 너무 심해 안경 없이 실험실에서 길을 찾기가 어려웠고 헬렌 켈러는 듣거나 볼 수가 없지만 유명한 대학을 우등으로 졸업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장애에도 불구하고 새 역사를 만들었다.

■ 깊이 생각하기: 누구든지 나이가 들어갈수록 장애인이 된다. 그래서 늙어 죽을 때는 모두가 장애인으로서 죽게 된다. 장애인이라고 다 정신적인 장애인까지 되는 것은 아니다. 마음자세와 생각과 가치관, 그리고 신앙이 중요하다. 장애인이나 온전한 사람들이나 진정한 가치는 그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장애인도 만들었다고 말씀하신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장애인을 더욱 눈여겨보신다. 그리고 그들을 부축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크게 쓰신다. 예수님의 3년 반 전도활동에서 많은 시간을 장애인 치료에 사용하셨다. 장애인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사용하시는 영광된 존재들이다.

■ 서로나누기: 나는 장애인을 도운 경험이 있는가요? 나는 장애인이 하



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것을 보았는지요? 정신적인 장애인이란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은 왜 장애인들을 만드셨는지요?

■ 기도

## 제 83 과 나는 일생동안 어떤 일을 하는가?

■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일 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약 4:13-16).

< 예화 >

“Our Daily Bread”라는 기관에서 인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사를 했다.

잠.....	23 년.....	32.9%
일.....	16 년.....	22.8%
TV.....	8 년.....	11.4%
식사.....	6 년.....	8.6%
여행.....	6 년.....	8.6%
여가.....	4.5 년.....	6.5%
병.....	4 년.....	5.7%
옷 입기.....	2 년.....	2.8%
종교생활.....	0.5 년.....	0.7%
Total.....	70 년.....	100%

(조사:Our Daily Bread, November 25, 1992)

그 외에 보통 미국인은 평균적으로 3 년 동안 비즈니스 회의를 하고 13 년 동안 TV 시청, \$89,281의 음식을 먹고, 109,354 파운드의 음식 소비, \$6,881의 자판기 지출, \$35,138 개의 쿠키 및 1,483 파운드의 사탕, 감기 304 건, 자동차 사고 6 건, 입원 8 회 (남성) 또는 12 회 (여성), 23 년 동안 수면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깊이 생각하기: 태양의 영향권 아래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나이를 먹으며 결국에는 죽는다. 그런 인생의 연수는 한마디로 안개로 표현한다. 요즘 인간의 수명은 점점 길어지지만 90년을 산 사람과 120년을 산 사

람이 앉아서 인생이야기를 한다면 지나간 시간들은 모두가 한 단어로 말해 ‘허무’라고 말한다. 20대에서부터 일하기 시작하면 70세까지 50년을 일하고 80세까지 일하면 60년을 일하고는 설 수밖에 없다. 그리고는 모두가 한결같이 말하기를 “나의 마음은 지금 20대 청년이야” 라고 한다. 그러니까 인생전체를 살고 남는 추억은 한때 반짝했던 청장년기의 활동이다. 그러나 인간은 청년이나 노인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존재이다. 하나님은 노인들을 노인이라고 버려두지 않으시고 필요한 곳에 계속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

■ 서로나누기: 내가 하나님 편에서 인간들의 활동을 한눈으로 내려다본다면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요? 인간이 동식물들과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는 점을 어떻게 경험했는가요?. 나는 죽음이 가까워 오는 시점에서 어떤 말을 하고 싶은가요?

■ 기도

## 제 84 과 상대방이 이야기 할 때

■ 하나님의 말씀: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잠 18:13).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약 1:19).

< 예화 >

- 1) 나는 상대방이 이야기를 할 때 다른 생각을 한 적이 있는지요?
- 2) 나는 상대방이 말할 때 얼굴은 어떤 자세로 듣는지요?
- 3) 나는 상대방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동문서답 한 적이 있는지요?
- 4) 나는 상대방이 말할 때 다른 곳이나 다른 사람을 자꾸 보는 경향이 있는가요?
- 5) 나는 상대방이 말할 때 약간 무시하거나 내가 더 잘 알고 있다는 표정을 지은 적이 있는가요?
- 6) 나는 상대방이 말을 할 때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논쟁으로 번진 경험이 있는지요?
- 7) 나는 상대방이 약간 신경질적으로 말할 때 나의 반응은?
- 8) 나는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는 표정으로 말할 때 나의반응은 어떠했는가요?
- 9) 나는 상대방이 말할 때 중간에 자주 개입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말을 계속할 의욕을 상실케 하진 않는지요?
- 10) 나는 상대방의 말에 관심이 없을 때 어떤 자세를 갖는지요?
- 11) 나는 상대방이 말 할 것이 생각이 안 나서 곤란해 할 때 어떤 방법으로 그를 돕는지요?
- 12) 나는 상대방이 나를 비난하거나 부정적인 말만 계속할 때 나의반응은 어떠했는가요?
- 13) 나는 상대방이 나와 말을 계속하기를 원치 않을 때 나의 반응을 나타내는가요?
- 14) 나는 상대방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다 말하는지요?
- 15) 나의 말실수로 상대방이 오해하거나 분노한 적이 있는지요?

- 16) 나는 상대방이 말할 때 신문이나 잡지를 두적거린 적이 있는지요?  
 17) 나는 상대방이 서론을 빼고 중간부터 말해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요?  
 18) 나는 상대방이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노트를 하지 않아 집에 와서 장소와 일시 등을 되 물을 때가 있었는지요?  
 19) 나는 상대방이 나의 말에 신뢰를 하지 않는 인상을 보일 때가 있었는지요?  
 20) 나는 상대방이 약속을 어길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요?

■ 깊이 생각하기: 상대방이 말할 때 잘 경청하는 사람은 예의를 갖춘 사람이다. 내가 진지하게 말을 하는데 상대방 말끝마다 간섭하면 기분이 어떨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상대방이 말을 시작 하자마자 가로채 자기의 말을 장황하게 늘어놓는다. 그러면 말하던 사람은 지금까지 무슨 말을 했는지 생각이 안나 상대방에게 묻는 경우도 있다. 현자는 잘 듣고 천천히 대답한다. 성급한 응답은 신중하지 않으며 어리석고 부끄러운 일이다. 빨리 대답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대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귀는 두 개지만 말하는 입은 하나뿐이다. 두 귀로 들어오는 많은 양을 하나의 입으로 감당하려면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듣기는 정확하게 듣고 판단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답변은 전체 이야기를 다 듣고 파악한 후에 말해야 한다.

■ 서로 나누기: 나는 습관적으로 상대방의 말을 다 경청하기 전에 개입하곤 하는가요? 나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가요? 부정적으로 반응하는가요? 나는 상대방 이야기의 뜻을 다 파악하기 전에 답을 말하는가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대화 상대자는 어떤 타입 인가요? 나는 대화를 하다가 상대방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적이 있는가요?

■ 기도

## 제 85 과 진정한 작품은 언제부터인가?

■ 하나님의 말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전 12:8-11).

### < 예화 >

일본의 유명한 화가였던 호쿠사이는 1849년 89세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내가 50세까지 해 놓은 모든 작품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나는 나이 70세가 되니까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따라서 70세 이후에 만든 작품만이 나에게 조금은 의미를 가져다준다.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5년을 더 살게 해주신다면 나는 진정한 화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깊이 생각하기: 자기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 앞에서 내 인생경험을 논하지 말아야한다. 자기보다 더 경험이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경험을 자랑하지 말아야한다. 그리고 인간은 제 아무리 큰일을 하고 선한 일들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큰 교회를 목회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세울 것이 없다.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이 교회 사무실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생각난다. “이제 목회를 할 만하니까 은퇴란 말이야” 은퇴 전에 목회는 미숙한 점이 너무 많다는 말이다.

■ 서로 나누기: 나는 아직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잘 아는 것처럼 말해 본적이 있는가요? 나는 오래전에 말한 내용을 세월이 지난 후에 다시 말하게 될 때 다른 점을 느꼈는가요? 나는 나이가 드신 분 앞에서 경솔한 언행을 한 적이 있는가요? 내가 젊었을 때 한 말을 지금 회상해 보고 부끄러움과 후회를 한 적이 있는가요? 나는 지금도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어떤 경우에 느끼는가요?

### ■ 기도

## 제 86 과 오렌지 두 개의 응답

■ 하나님의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마 7:7,8).

< 예화 >

원양 여객선을 타고 대서양을 횡단하는 동안 선장은 F.B. 메이어(F.B. Meyer)에게 일등석 승객을 위한 강연을 부탁했다. 그날 오후 강연자 메이어는 승객들이 있는 곳으로 강의를 하러 갔는데 어떤 불가지론자(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자)도 따라갔다. 그는 메이어의 연설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말쟁이가 말을 했어” 라고 빈정대는 말을 듣고 싶었다. 선장의 요청에 따라 강사 메이어는 ‘응답기도’에 대해 말했다. 강의에 참석 한 불가지론자는 그의 친구들로부터 “마이어 박사의 강연 제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주저 없이 나는 믿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불가지론자는 집회가 시작되기 전에 두 개의 오렌지를 주머니에 넣고 장난기로 갑판 의자에서 잠든 한 노인 여성의 손에 쥐어주었다. 집회가 끝난 후 그는 할머니가 오렌지 조각 중 하나를 즐겁게 먹는 것을 보았다. 불가지론자는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오렌지를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예, 선생님, 내 아버지는 나에게 아주 잘 해 주 십니다.” “당신 아버지요? 당신의 아버지는 아직 살아있을 수 없습니다” “아니요, 나는 지금 응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나는 며칠 동안 뱃멀미를 했거든요. 나는 하나님께 오렌지를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다가 잠깐 잠이든 것 같습니다. 내가 깨어났을 때, 그가 나에게 오렌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를 보내 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불가지론자는 말이 없었다. 나중에 그는 그리스도께로 개종 한 후에 말하기를 “예, 하나님께 기도 하면 응답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 깊이생각하기: 예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하는 약속이다. 이 약속은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진 특별한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필요하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기도하다가 실망하여 기도를 중단하는 사람도 있는데 기도는 이뤄질 때 까지 하는 것이다. 손에 오렌지 두 개가 들어진 이야기는 기도 응답의 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응답 방법은 신자나 불신자를 통해서, 짐승이나 자연을 통해서, 아는 자나 모르는 자들이나 그 외에 전혀 기대하지 않은 방법으로 응답하신다. 어느 원주민 사역자는 내일 먹을 양식이 없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마당에 고기 한 덩어리가 놓여있었다고 한다. 후에 알고 보니 고양이 가 물어다가 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서로 나누기: 나는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은 적이 있는가요? 나는 기도의 응답이 이미 이뤄진 것을 모르고 있지는 않은지요? 나는 구체적인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좋은 일이 생긴 것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요? 나는 일용할 양식과 건강과 날마다 준비해 주시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해 보았는가요?

■ 기도



## 제 87 과 회사가 왜 이렇게 엉망이야

■ 하나님의 말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약 2:17).

< 예화 >

어느 회사 사장이 업무 차 외국으로 장기간 출장가면서 중요한 임원들에게 회사를 잘 부탁했다. “여러분, 저는 내일 해외로 출장 갑니다. 제가 없는 동안 여러분들은 회사 일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책임자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내가없는 동안 회사 일을 책임지고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기적으로 편지로 회사의 사정을 묻고 나의 지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회사 진행상황을 자주 보내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의 여행에서 돌아올 때까지 해야 할 일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는 모든 계획과 할 일들을 지시했다. 여러분 “모두 동의합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는 몇 년 동안 해외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주 글을 쓰고 자신의 비전과 염려를 전달했다. 마침내 사장은 돌아왔다. 그는 회사 정문으로 걸어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엉망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화단에서 번성하는 잡초, 앞에 보이는 건물유리창이 몇 장씩이나 깨진 모습, 즐고 있는 안내탁상에 여자, 여러 사무실에서 큰 소리로 울려 퍼지는 음악, 두세 사람은 뒷방에서 장기놀이를 하고 있었다. 회사는 이익을 얻는 대신 큰 손실을 입었다. 사장은 너무나 화가 나서 책임자 몇 명을 불러 모으고 얼굴을 찌푸리며 다그쳤다. “이거 회사가 이렇게 엉망일수가 있어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던 말이에요 내 편지 못 받았어요?” 그들은 말하기를 “오, 예, 물론 다 받았습시다. 우리는 심지어 그것들을 책으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 일부는 그것들을 외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매주 일요일에 사장님의 편지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들은 사장님의 편지를 날마다 읽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편지였습니다.” 사장은 노를 발하면서, “그렇다면 회사가 왜 이렇게 엉망이야”

■ 깊이 생각하기: 우리 크리스천들은 각각 하나님 앞에서 꼭 해야 할 일들이 있다. 그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그러나 예배만 드리고는

삶속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약하다.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찬송하고 형식적으로 헌금하면서 교회만 잘 다닌다. 그러는 사이에 나의 영혼은 삭막해지고 가정과 교회, 사회는 영적으로 메말라 간다. 따라서 사회도 도덕적으로 타락해 간다. 실천은 없고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외울 뿐이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배우고 깨달은 말씀을 최대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신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 서로 나누기: 나의 믿음(신앙)을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내야 하는지요? 성경을 알기는 하는데 그대로 살기가 왜 어려운가요? 예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요? 실천적인 신앙을 위한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 기도

## 제 88 과 사람과 남은 차

■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고후 4:16)

< 예화 >

사람은 자동차와 같다. 자동차가 오래되면 하나씩 고장이 난다. 엔진소리도 커지고 매연도 많이 생긴다. 삭옵서버에도 문제가 생겨 차체가 출렁거린다. 에어컨은 나오지 않아 여름에는 진땀을 뻘뻘 흘린다. 창문은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아예 닫고 다닌다. 트랜스 미션에 문제가 생긴다. 악셀레이터를 다 밟아도 차는 잘 나가지 않는다. 변속기는 높은 기어로 잘 들어가지 않는다. 실린더가 마모되고 압축이 해제되어 약간의 경사도 오르기가 어렵다. 헤드라이트가 어두워지고 경적이 약해진다. 배터리는 스타트가 안 될 때가 많다. 후드와 트렁크는 페인트가 많이 베껴졌고 버티는 스틱이 고장 나서 항상 막대기로 대신한다. 차문들은 자동으로 교장나서 밖에서 열수 없다. 그러나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차가 오래되어도 잘 달리고 차의 성능도 어느 정도는 살아있고 차외면 페인트도 물청소를 자주했기 때문에 아주 흉하지 않다. 인간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만큼 건강관리를 잘하면 외모도 괜찮고 건강도 잘 유지될 수 있다. 나이가 80, 90인데도 사람들은 70대로 본다. 70대는 50-60대로 본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더 건강하며 얼굴이 더 젊게 보이며 얼굴빛과 눈빛이 살아있고 말소리도 또랑또랑 하며 운전도 잘한다. 예수님 믿고 차 관리 잘하면 말년에 행복하게 살 수 있다.

■ 깊이 생각하기: 나이가 들수록 친한 사람들을 많이 뒤흔어야 한다. 그리고 한 주일에 두세 번은 나가서 식사도 하고 즐거운 대화를 나눠야 건강해진다. 여자들은 집에서 자녀들하고 전화 하고 드라마를 보면 대체적으로 만족한다. 물론 예외도 있다. 그러나 남자들은 부인이 밖으로 못나가게 집에 가두어놓고 잔소리만 하면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우울증이 생기고 여러 가지 병들이 발생하여 일찍 세상을 떠난다. 가정이 행복하려면 부부간의 지나친 간섭을 피하고 각자가 즐거운 일을 하도록 서로

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부부는 자주 함께 공원이나 가까운 곳으로 나가 운동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사먹고 가끔씩 여행을 다니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산다.

■ 서로 나누기: 나는 부부간에 서로 간섭하는 관계인가요? 격려하는 관계인가요? 나는 결혼 생활에 행복을 어디서 찾는가요? 나의 삶을 낡은 차로 만드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요? 나는 내 삶을 새 차로 만들기 위해 어떤 일을 하는가요?

■ 기도

## 제 89 과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교회

■ 하나님의 말씀: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 18:20,21).

### < 예화 >

Home Made 조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통계를 발표했다. “우리가 말하는 것 중에 77%는 부정적인 말이며 비생산적이다. 자녀들은 성장하면서 “no”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그들은 18세까지 14만8천 번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 자란다고 한다. 3년에 걸친 조사에 따르면 학교 선생님 중 75%가 부정적인 사람으로 나타났다.” 교회가 좀 젊어지고 개혁적인 의도로 제도나 강단 구조, 예배형식을 고치려고 하면 반대자들이 너무 많아 목회자들은 그만 주저앉고 만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강대상을 크리스털로 바꾸는데 1년이 걸렸다고 한다. 주보에서 너무 형식적이고 영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고치려고 하면 일부 부정적인 분들은 무조건 반대다. Emerging Church(새롭게 일어나는 교회) 라는 새로운 교회갱신운동이 있다. 기존교회의 고정된 방식을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형태의 예배와 교회구조로 변신하자는 운동이다. 이런 교회들의 건물은 창고형식이고 창문이 많아 밝다. 성가대는 없고 찬양 팀으로 대체한다. 설교 중에 짧은 연극과 비디오 자료를 삽입하여 시청각적인 예배를 드린다. 미국에서 1960-70년대부터 시작한 Emerging Church들을 New Paradigm Church(새로운 사고방식의 교회)라고도 하는데 이들 교회들은 기존방식을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세대의 사고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설교자는 티셔츠나 난방셔츠면 된다. 이러한 교회들은 그간 40년-50년 동안 급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반대로 기존 교회 형식을 고집하는 교회들은 젊은이들이 다 빠져나가고 교회는 연령대가 높아져 머리가 하얀 사람들만 앞자리로 앉아 쓸쓸한 분위기로 바뀌었다. 기존교회들이 나중에야 그 원인을 통감하고 일부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이미 때가 늦어 교회는 점점 노년 화되고 젊은 세대들은 새롭게 일어나는 교회를 찾아간다. 부정적인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

어 가는 교회는 앞으로 계속 노령화 될 것이다.

■ 깊이 생각하기: 인간이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을 좋아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 까. 자기에게 손해를 입을 것이라고 예상될 때, 자기가 자신 없을 때, 자기가 경험이 없을 때, 자기가 알지 못할 때, 자기가 체면상 그렇게 따를 수 없다고 생각될 때, 상대방이 미울 때, 자기가 좀 아는 척하려고 할 때 등 인간이 부정적으로 되어가는 이유는 거의 모두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그 결과 자기도 퇴보하고 교회도 퇴보하고 사업체도 퇴보하고 단체도 퇴보한다. 하나님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다. 솔로몬은 잠언에서 긍정적인 말을 할 때 그것이 복이 되어 자기의 삶을 풍족하게 만든다고 했다. 불신자로 있을 때는 부정적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바뀌는 사람들이 많다.

■ 서로나누기: 나는 부정적인 편인가요? 긍정적인 편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할 때와 긍정적인 말을 할 때 나의 주변 분위기는 어떻게 달라지는가요? 부정적인 말로 인해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는가요? 반대로 긍정적인 말을 했을 때 부작용을 경험했는가요? 하나님은 어느 면에서 긍정적인가요?

■ 기도

## 제 90 과 결코 고갈되지 않는 사랑

■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17).

### < 예화 >

워싱턴 어빙(Washington Irving)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어머니의 사랑은 결코 고갈되지 않으며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그는 지치지 않습니다. 좋은 평판, 나쁜 평판 등 그런 세상의 비난과 정죄에도 어머니의 사랑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 깊이 생각하기: 이 세상에서 예수님 사랑을 가장 닮은 사람은 어머니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을 직접 만드시기 않고 어느 천사가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는 자신의 모든 성품을 꼭 닮게 만드셨기 때문에 여인이 자식을 낳은 것과 같이 그만큼 생명의 애착심을 갖는 것이다. 어머니가 자식을 낳고 자신이나 남편의 성품을 그대로 닮은 것을 보면 자식에 대한 사랑이 갑절이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 받고 태어났다. 그만큼 인간은 하나님의 최상의 가치를 지닌 존재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까지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 서로 나누기: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만큼 자식을 사랑하는지요? 자식에게 베푸는 것에 대하여 대가를 바라고 있는가요? 나는 부모로서 자식에게 쏟은 사랑에 대해 실망해 본적이 있는가요? 자식에 대한 사랑은 언제까지 지속되는가요? 자식에 대한 사랑을 시적으로 표현해 보세요.

■ 기도

## 제 91 과 김계용 목사는 이런 목회를

■ 하나님의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게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요 10:1-5).

### < 예화 >

나성 영락교회 담임이셨던 고 김계용 목사님은 6.25 사변 당시 28세에 사모님에게 3일후에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독신으로 월남 하였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종로국민학교에 있는 고아원 2천 명 정도를 한 경직 목사님으로부터 인수받아 얼마간 봉사하다가 북한군이 다시 서울로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미군의 협력을 얻어 비행기와 배로 원아들을 급하게 제주도로 옮겨 제주도 농업고등학교로 들어갔다. 당시 나이는 29세 정도였다. 그는 종로국민학교에 있을 때 원아들이 밤에 추울까 봐 쌀가마니를 보이는 대로 수집하여 아이들의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고 제주도로 가서는 새벽기도회 인도와 상담, 그리고 함께 축구하면서 놀아주었고 아픈 아이들을 화장실까지 부축하여 돌보아 주곤 했다. 그리고 틈나는 대로 아픈 아이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기도 해줬다. 그 후 그는 대구중앙교회 담임목사로 청빙 받아 목회를 잘하시다가 서울 무학교회담임으로 오셨다. 무학교회에서는 달동네 신자들을 날마다 심방하느라고 구두에는 항상 뽕얀 먼지가 쌓여 막 노동자 신발 같았다. 달동네 사람들은 김 목사님이 보이면 저기 예수가 걸어간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김 목사님은 신자들이 정성껏 보내오는 과일 같은 것들을 모아놨다고 심방 다닐 때 움막집에 사는 가난한 집에 나눠주곤 했다. 브라질에서는 교회 건축하시면서 일하다가 점심때가 되면 진흙을 묻힌 신발을 신은 채 모 장로님이 경영하는 식당으로 들어갔는데 방금 닦은 바닥을 진흙투성이 신발로 자국을 남겼다고 하면서 주인 장로님이 웃으신다. 김 목사님은 이민 교회의 험악한 당회를 인내와 온유함으



로 잘 이끌어 갔다. 그리고 마지막 L.A. 영락교회로 오셔서 교인들을 친구처럼, 자식처럼 사랑하여 모든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은 나만 사랑해” 라고 말한다. 당회에서 소리가 좀 높아지면 슬그머니 눈을 감으시고 듣기만 하다가 “목사님 다 끝났어요”하면 “어 그래요” “그런데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라고 하면 “어, 그러면 다음 주에 하면 되지” 하고는 주장이 강했던 장로님들을 그 다음 주간에 개인적으로 만나 식사를 대접하면서 격려하고 도와 달라고 하면 모두가 순종하곤 했다. 김 목사님은 “심방을 가면 그 집에서 내준 방석 밑에 내 간을 다 빼서 방석 밑에 깔아야 되” 라고 말한다. 김계용 목사님은 1년 앞당겨 69세에 40년 독신 목회를 나성영락교회에서 마치시시고 북한에 계시는 사모님을 만나기 위해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했다. 사모님을 위해서 시계, 반지, 고무신, 옷, 그리고 당시 보지도 못한 복중에 있던 아들을 위한 옷, 손주들의 옷 등 이민 가방 여러 개를 준비했다. 드디어 그는 흥분한 마음으로 고향 신의주에 도착하여 40년 동안 28세로만 그리워하던 사모님을 만난다. 그리고 4일간의 만남 속에서 사모님과 사랑이야기를 채 나누기도 전에 신의주 해외동포 담당자가 동석한 점심을 먹는다. 점심 대접을 맛있게 받으신 후 김 목사님은 가슴이 울렁거린다는 말을 하시면서 화장실로 급히 간다. 화장실에서 나온 후에도 여전히 가슴이 울렁거린다고 하면서 아이들이 있는 건넌방으로 들어가 누운 후 바로 눈을 감았다. 많은 사람들은 그는 거기서 순교를 했다고 말한다.

■ 깊이 생각하기: 교회 지도자 신분을 얻기는 어렵지 않다. 요구하는 학업과정을 마치고 목사안수를 받든지 장로로 선택 되든지, 안수집사, 구역장, 교사로 임명받으면 된다. 그러나 그 후부터는 그의 됴됨이가 중요하다. 계급이 높을수록 슬슬 교만해 지는 사람이 있고 더 겸손해지는 사람이 있다. 김 계용 목사님의 성품과 지식, 경험 등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며 학문적인 노력과 오랜 세월동안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자기 몸을 치는 그런 훈련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도자 형태에는 두 가지가 있다. 양 무리에 앞서 가며 험한 길을 헤쳐 가는 목자 형태와 뒤에서 양을 채찍과 무서운 개로 몰아가는 카우보이 스타일이 있다. 목자는 양의 모든 것을 알고 정성껏 돌보지만 카우보이는 양을

한갓 수입으로 본다.

■ 서로나누기: 참 목자가 되기가 왜 어려 운가요? 내가 경험한 참 목자는 어떤 분이었는가요? 내가 교회에서 지도자로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본이 되어야 하는가요? 나는 지도자로서 목자형인가요 카우보이형인가요?

■ 기도:

## 제 92 과 마지막 검투사대회

■ 하나님의 말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딤후 4:7-8).

### < 예화 >

엘레마쿠스는 4 세기에 살았던 수도사였다. 그는 하나님이 “로마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소유물을 자루에 넣고 로마로 출발했다. 그가 도시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거리에 붐볐다. 그는 왜 모든 사람들이 흥분을 불러 일으켰는지 물었다. 그날은 두 검투사가 콜로세움에서 서로 죽을 때 까지 싸우는 경기를 한다고 했다. 그는 콜로세움으로 달려가 검투사들이 “씨자(Ceasar)에게 만세, 우리는 씨자를 위해 죽는다”라고 외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이 오신지 4 세기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즐거움을 위해 서로를 죽이고 있습니까?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외쳤다. 그는 난간을 뛰어 넘어 경기장 한가운데로 나갔고, 두 검투사 사이에 끼어 들어 손을 들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십시오.” 라고 외쳤다. 군중은 항의하고 그를 내 보내라, 라고 외치기 시작했다. 검투사가 다가와서 검 자루로 그의 배를 쳤다. 그 수사는 배를 움켜쥐고 일어나 달려가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아라.” 라고 외쳤다. 군중은 계속해서 그를 쫓아내라고 외쳤다. 그 순간 검투사 한 명이 다가와서 작은 승려의 배를 향해 검을 던졌다. 그 검은 승려의 배를 뚫고 나왔고 그는 땅 바닥으로 쓰러져 피를 쏟았다. 그 피는 진홍색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으라”는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다. 콜로세움에 있던 8만 명은 슬픔의 탄식을 하면서 하나 둘씩 일어나 자리를 떠났다. 몇 분 안에 8만 명의 군중은 모두 사라졌고 경기장 안에는 의인의 핏자국만 선명하게 보였다. 이것이 로마 역사상 마지막으로 알려진 살인 검투사 대회였다.

■ 깊이 생각하기: 우리는 생명의 두려움으로 인해 의로운 행동에 나서는 것을 회피할 때가 있다. 의인의 행동은 어디까지여야 하는가. 의인

의 싸움은 말에 있지 않고 행동에 있다. 바울은 의인으로서 전도자로서 행동하는 사람으로 평생을 걸어 다니며 복음을 외쳤다. 그는 죽음에 이르도록 돌로 맞았고 헐박과 굶주림과 채찍으로 그리고 순교로 그의 길을 마쳤다. 한 수사는 살인극의 현장으로 담대하게 걸어 나가 용서를 크게 외치고 순교를 당한다. 그의 순교로 인해 죽음의 결투는 로마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 의인의 행동은 위대한 결과를 낳는다.

■ 서로 나누기: 나는 어디까지 의로운 행동을 하는가요? 크리스천들은 진정으로 의로운 자인가요?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불로 멸망당했는가요? 진정한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나는 지금까지 어떤 의로운 행동을 했는가요?

■ 기도

## 제 93 과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신다

■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쭙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6-8).

< 예화 >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시고 천천히 이루신다. 인간은 하나님이 느리다고 매우 답답하게 생각한다. 뉴잉글랜드 유명한 설교자 필립 부룩스(Phillips Brooks)는 그의 침착하고 조용한 태도로 유명했다. 그러나 그도 때때로 좌절감과 초조감의 순간을 겪는다. 어느 날 그의 친구는 부룩스가 우리에게 갇힌 사자처럼 답답한 심정으로 안절부절하는 것을 보았다. “무슨 일이야, 브룩스?” 브룩스는 답하기를 “나는 서두르지 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야!” 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친구는 부룩스에게 “우리는 여러 번 그 같은 것을 경험하고 있어.” 이어서 그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소개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들 중 일부는 헌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렸지만 그들의 노력의 결실을 보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했어. 윌리엄 캐리는 버마에서 첫 번째 힌두교 개종자를 얻기 위해 7년이 걸렸고 아도니람 저드슨(Adoniram Judson)은 설교의 결실을 얻기까지 7 년이 걸렸고 서아프리카에서 첫 번째 개종자를 얻기까지는 14 년이 걸렸으며 뉴질랜드에서는 9 년이 걸렸다. 그리고 타히티에서는 전도를 시작한지 16 년 만에 결신자들을 얻기 시작했다. 토마스 아 캠퍼스(Thomas a Kempis)는 이러한 인내심을 다음과 같은 말로 묘사했다. 그는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 정도면 그만 둘 때가 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이제 여기까지만 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믿었다.

■ 깊이 생각하기: 기다린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초조감을 준다. 인간은 빨리 빨리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느긋하시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하기

를 “하나님은 언제나 느리시단 말이야.”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 만약에 인간이 답답하다고 그 시간표를 어기고 일을 진행한다면 어떻게 될까. 반대로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렀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때를 알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다. 기도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짧게 걸릴 수도 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결정을 들을 때 까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 서로 나누기: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지금도 기다리는 것이 있는가요? 나는 기도를 통해서 얻은 응답으로 일을 시작하는가요? 나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이 행동하다가 손해를 본적이 있는가요? 나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여 행동했는데 그 일이 이뤄지지 않은 경험이 있는가요?

■ 기도

## 제 94 과 거리의 가수가 최고의 가수로

■ 하나님의 말씀: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눅 14:13,14).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갈 2:10).

< 예화 >

스웨덴의 한 작은 마을에 극도로 가난하고 미숙 한 어린 소녀가 살았다. 그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하인으로 여러 가지 일을 했다. 그녀는 노래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유명한 가수가 되고 싶은 마음에서 거리로 나섰다. 그녀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주고 동전 몇 푼을 기대하며 비와 바람, 더위 추위 속에서도 변함 없이 노래를 불렀다. 그러나 하루가 끝날 무렵에도 한 끼를 먹을 만 한 돈이 모아지질 않았다. 마을의 일부 사람들은 의회에 말하기를 아이들이 녀마를 입고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항의는 했지만 아무도 그녀를 도와 줄 생각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훌륭한 음악인이 지나가다가 그녀의 아름다운 목소리에 매료되었다. 그는 그 소녀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 영광스러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노래가 알려져 두 대륙에 퍼지기 시작했다. 그의 이름은 제니 린드(Jenny Lind, 1820년 10월6일-1887년 11월2일)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스웨덴의 나이팅게일”이라고 불렀다. 그녀는 스웨덴과 유럽 전역 오페라에서 소프라노 역할을 수행했으며 1850 년부터 미국에서 매우 인기 있는 콘서트 투어를 했다. 그는 19세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가수 중 한사람이 되었고 스웨덴 왕립 아카데미의 회원이 되었다.

■ 깊이 생각하기: 우리주변에는 재능은 있으나 경제사정이 여의치 못해 배움의 길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다. 예수님의 관심은 부자들 보다 가난한 사람들이다. 가난한 가정에 유능한 인재들이 있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교회사회에서 이

런 사람들을 찾아보는 일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태국 산간지역에 버마 난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마을이 있다. 이 지역에서 선교하는 어느 필리핀 30대 여선교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그 곳에 교회를 짓고 버마 청소년들을 양육하여 지금까지 4명을 방콕에 있는 대학교에 보냈다고 한다. 아프리카 지역에도 많은 청소년들이 꿈을 가지고 있지만 후원자가 없어 그대로 좌절상태에 있다. 우리는 특별히 가난한 가정에 숨겨져 있는 인재들을 찾아 지원하는 사역을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 서로나누기: 나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인재를 조금이라도 도운 적이 있는가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이 도움을 받고 크게 성장한 사례를 아는지요? 재능이 있는 가난한 청소년들을 어떤 방법으로 도울 수 있는지요?

■ 기도



## 제 95 과 불순종하면서 하는 기도

■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와 그의 입의 말씀이니라”(사 1:19,20).

< 예화 >

존 레번더(John Lavender)는 그의 책 “왜 기도가 이뤄지지 않는가?”(Why Prayers are Unanswered)에서 놀만 빈센트 펠(Norman Vincent Peale)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놀만이 어렸을 때 그는 크고 검은 시가(굵은 담배)를 발견하고 골목으로 피해 불을 켜다. 맛은 좋지 않았지만 아주 어른 스럽게 느꼈다. 그의 아버지가 가까이 오는 것을 발견하자 그는 재빨리 시가를 등 뒤로 감추고는 탄청을 부렸다. 아버지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앞 편에 있는 써커스 공연 간판을 가리키면서 “아빠, 저 서커스단이 우리 마을에 오면 가도 돼지요?” 그의 아버지는 놀만에게 결코 잊지 못할 교훈을 가르쳐주었다. “아들아, 불순종을 숨기면서 다른 것을 요구하지 말아라”

■ 깊이생각하기: 놀만이 아버지를 속이지 못한 것처럼 인간도 하나님을 속이지 못한다. 우리가 왕 앞에 나가서 사실을 속이고 사건을 보고한다면 나중에 어떤 벌을 받을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된 것들은 숨겨놓고 당장 필요 한 것들을 애타게 부르짖는다. 기도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자신이 어떤 일에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든지 회개하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기도자의 진실 된 마음을 보신다.

■ 서로나누기: 기도가 막힐 때는 왜 그런가요? 내가 하나님께 거리낄 것이 없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기도응답이 어떻게 이뤄졌는가요? 기도하다가 마음에 꺼리는 일들이 생각나면 어떻게 하나요? 기도가 가장 잘될 때는 어떤 때인가요?

■ 기도

## 제 96 과 마음의 빈 공간

■ 하나님의 말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전 12:1,2).

### < 예화 >

세기의 철학자 버트랜드 러셀(Bertrand Russell)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하나님을 믿는 법을 배웠지만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믿는데 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무신론자가 되었다. 그의 딸인 캐더린 테이트(Katherine Tait)은 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의 심장 어느 곳, 그의 영혼 깊숙한 곳에, 한때 하나님에 의해 채워졌던 곳이 이제는 빈 공간이 되었어요. 그는 지금 그 안에 넣을 다른 것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어요” 라고 말했다.

■ 깊이생각하기: 빈 공간! 그 공간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지만 그 공간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른다. 육신은 음식으로 채워지고 정신은 지식과 즐거운 오락으로 채울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은 갈수록 공허감만 더할 뿐이다. 그렇다면 그 공간은 어디에 있는가? 그 곳은 바로 영혼 속에 있다. 그 영혼 속에 존재하는 공간, 그 공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이 채워져야 한다. 인간의 깊은 곳에 있는 생명의 주체인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나의 실제 주인공이다. 그 영혼은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와 교제를 원한다.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기쁘고 인생의 가치와 삶의 의미를 찾게 된다.

■ 서로나누기: 나는 언제 인생의 허무감과 좌절을 느껴 보았는가요? 그 허무감을 어떻게 해결했는가요? 인생의 보람과 가치를 언제 느꼈는가요? 허무감과 절망감으로 살아가는 이웃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 기도

## 제 97 과 눈보라 속에서 살아난 아이

■ 하나님의 말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벧전 2:24).

< 예화 >

영국 사우스 웨일스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한 여자가 어느 눈보라가 휘날리는 날에 어린 자식을 품에 안고 길을 걷고 있었다. 그날은 날씨도 몹시 추워 통행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다. 그녀는 추위에 총총걸음으로 걸어갔지만 그만 지치고 추위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길가 눈 더미에 쓰러지고 말았다. 얼마 후 수색자들이 와서 그녀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죽어있었다. 잠시 후 수색대원들은 엄마의 놀라운 행동을 발견했다. 어머니는 자신의 겂옷을 벗어 어린아이를 덮어 주었던 것이다. 수색대원들이 어린아이를 덮은 옷들을 들춰보니 그 아이는 아직도 살아있었다. 세월이 지난 후 그 어린아이 데이비드 로이드조지는 성인이 되어 영국의 총리가 되었다. 그는 영국 최고의 정치가 중 한 사람이 된 것이다.

■ 깊이 생각하기: 이 세상에서 엄마의 사랑보다 더한 사랑은 없다. 우리가 쉽게 희생, 희생, 말하지만 막상 나의 희생을 요구하는 현장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숙제로 남는다. 자녀가 물에 빠졌을 때, 집에 화재가 났을 때, 기차가 오고 있는데 아이가 철로 옆에서 놀고 있다든지, 차가 지나가는데 어린아이가 길에서 놀고 있을 때 등,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의 희생이 긴급히 요구되는 순간들을 만날 수 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없애주시고 천국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에서의 위대한 희생을 선택하셨다.

■ 서로 나누기: 나는 일상생활에서 가정을 위하여 어디까지 희생하고 있는가요? 나는 긴급한 순간에 내 자식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요? 나는 우리주변에서 나의 희생이 요구될 때 어느 정도까지 행동할 수 있는가요? 나는 평상시 생활 속에서 어떤 희생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요?

■ 기도

## 제 98 과 아이들은 듣는 대로 배운다 성경

■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신 6:6,7).

< 예화 >

도로시로놀테의 작품에서 그는 말하기를 “아이들은 그들이 살면서 배운다” 를 우리 집 벽에 붙여 놓고 싶었다 라고 말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이가 비판을 받으면서 자란다면 그는 비난하는 법을 배운다.

아이가 적대감을 가지고 자란다면 그는 싸우는 법을 배운다.

아이가 조롱을 받고 자란다면 그는 부끄러워하는 법을 배운다.

아이가 수치심을 가지고 자란다면 그는 죄책감을 느끼는 법을 배운다.

아이가 인내심을 가지고 자란다면 그는 인내하는 법을 배운다.

아이가 격려와 함께 자란다면 그는 자신감을 배운다.

아이가 칭찬과 함께 자란다면 그는 감사하는 법을 배운다.

아이가 공정하게 자란다면 그는 정의를 배운다.

아이가 인정받고 자란다면 그는 자신을 인정하게 된다.

아이가 친교하며 자란다면 그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된다.

아이가 인정과 우정을 가지고 자란다면 그는 세상에서 사랑을 추구하며 사는 법을 배운다.

■ 깊이 생각하기: 많은 가정에서 부부간의 말다툼을 할 때 자녀들이 보고 듣는다. 때로는 큰 소리도 나오고 서로 비난하는 말도 나오고 욕하는 말도 나오고 물건을 던지는 일도 발생한다. 그러한 장면을 자녀들이 보고 자란다면 그들의 마음과 성격이 어떻게 변할까. 부모가 자주 다투면 자녀들은 일상생활에서 의욕을 잃고 슬픈 마음을 갖게 된다. 자녀들이 무슨 죄가 있어 그런 어른들의 싸움에 상처를 받으며 살아야 하는가. 그러나 반대로 엄마와 아빠가 대화할 때 자주 웃고 농담도 하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희망적인 말을 한다면 자녀들은 매우 고무되어 희망과 용기를 갖게 되며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 그리고 그들도 부모의

그러한 긍정적인 대화법을 은연중에 배워 친구사이에서나 결혼해서도 따듯한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 부모가 조금만 절제하고 교육적인 면을 고려한다면 자녀들은 그만큼 신나게 자란다. 식구들이 모여 성경을 같이 읽고 그 뜻을 간단히 생각한다면 그런 분위기와 추억은 평생 동안 그들에게 영향을 준다.

■ 서로 나누기: 나는 자녀들이 듣는 데서 부부간의 말다툼 할 때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요? 나는 부부간에 다툼 후에 자녀들에게 어떤 사과와 위로를 하는지요? 나는 자녀들이 기대만큼 공부를 못했을 때 어떤 말을 하는지요? 나는 자녀들에게 장래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한다고 말 하는지요?

■ 기도

## 제 99 과 산을 옮긴 기적에 기도원

■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롬 1:16).

< 예화 >

몇 년 전 필자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어느 기도원을 찾았다. 이 기도원은 LA에서 북동쪽으로 1시간 30분정도에 있다. 오전에 가서 몇 시간을 그 원장과 대화도 나누면서 그의 간증을 듣게 되었다. 그는 그 기도원을 기적의 기도원이라고 말한다. 그 기도원 자리는 본래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창고건물이었다. 어느 날 그는 일을 벌였다. 그 창고를 기도원으로 만들 생각을 가지고 창문을 내기 시작했다. 창문 작업을 하고 바닥을 마루로 깔 면서 툽질 소리, 망치소리가 밖까지 들렸다. 마침 그때 산림청에서 조사가 나왔다. 사람은 당황하여 그 원장에게 법원으로 호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장은 법원으로 호출 되었는데 판사가 말하기를 “당신은 왜 불법으로 건물용도를 변경했느냐?” 라고 물으니 원장은 한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God”이 라고 말하고는 자기가 타락했던 과거를 간증하면서 미국에 나 같은 사람들이 많은 데 그들을 불러 치료해 줄 목적으로 기도원을 건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때 판사가 기가 막혀 웃으면서 그냥 허락을 해주고 말았다. 그때부터 신나게 집을 개조해서 훌륭한 기도원으로 만들었다. 어느 날 그는 20-30명들 어가는 기도 굴을 곡괭이로 파서 만들고는 바닥에 나무마루로 깔아 말끔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그 공사를 맡은 미국사람이 공사를 마치고 돈을 달라고 하니까 원장은 나는 돈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다. 이 말을 들은 미국 업자는 기가 막혀 한참동안 동굴입구에 손을 대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잠시 후 그는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그는 솔직히 고백하기를 나는 어릴 때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안 나가고 있다면서 돈을 안 받겠다고 말했다. 그 후 그 옆에 좀 더 큰 동굴을 파 들어가는데 갑자기 천정이 무너져 흙더미가 그 한복판에 쌓였다. 그 밑에 사람이 없어서 큰 사고를 면했다. 그러나 그 후 그 구멍이 뚫어진 곳을 그냥 두었더니 그런대로 좋았다고 했다. 어느 날 산불이 나서 바람을 타고 기도

원 가까이 까지 타들어왔는데 원장은 놀라서 숲 가까이 다가가 불길을 향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지하라고 명령했다. 그랬더니 그 불길은 건물 뒤쪽에서 멈추고는 다른 곳으로 갔다. 그 후 불탄 자리를 발로 뒤적이는데 바닥에 축축한 물이 보였다. 그 기도원은 물이 없어 수양회 오는 학생들에게 항상 어려움이 있었는데 드디어 물이 보여 흥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디를 파야 되는가를 물었더니 현관 앞이라는 말을 들었다. 당장 크레인을 불러 예배실 현관 밑을 파기 시작했는데 일주일 동안 약 7미터정도를 팠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고 거기에 오는 목사님들 마다 당신 정신 돌았다고 말하곤 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파보자고 하고 폭 짝였더니 바닥에서 물이 솟기 시작했다. 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 구덩이가 넘쳐 하천까지 흘러가는데 그 길이가 1킬로미터 정도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런데 물탱크도 만들고 내려가는 대형 시멘트 로깅을 사야하는데 돈이 없다. 하천에 있는 공장으로 찾아가 주문을 마치고는 사장이 돈을 달라고 하니까 나는 돈이 없으니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하늘을 향하여 손으로 가리켰다. 그 사장은 감을 잡고는 그냥 준다고 했다. 다음날 대형 트럭에 로깅 10여개를 싣고 그 산골길로 들어오는데 소리가 하도 커서 헬리콥터가 낮게 떠서 지나가는 줄 알았다고 한다. 지금은 연못도 만들고 수돗물이 여기저기서 철철 나온다. 어느 날 물 회사에서 찾아와 물을 테스트하더니 일급수라고 하면서 팔라고 한다. 그러나 원장은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팔수가 없다고 단호히 거절했다. 이 기도원 소문이 일본까지 퍼져서 일본 신자들이 한동안 많이 다녀가고 주일 오후에는 정기기도회도 가졌다. 그리고 원장은 일본으로 초청되어 방송국에서 간증을 일본어로 유창하게 했는데 일제 강점기 때 초등학교 몇 년 다닌 실력으로 유창하게 했다고 한다. 또 큰일이 발생했다. 기도원을 사면서 은행에 매달 갚아야 할 돈이 있는데 몇 달씩이나 못내 압류가 들어간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40일 금식기도를 작정하고 산으로 들어갔다. 철야기도를 하면서 소리소리 지르니 밤 산골짜기가 찌렁찌렁 울렸다. 어느 날 새벽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웬 낯선 미국사람 둘이 허락 없이 들어왔다. 그 사람들은 원장 방옆으로 저벽 저벽 소리 내며 지나고 있었다. 이때 원장은 밖으로 나가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집으로 들어

가 이야기 하자고 한다. 듣고 보니 저 뒤에 흙이 흘러내린 산을 사고 싶다는 것이다. 자기들은 토목건설 회사를 경영하는데 모하비 사막에 도로 건설 책임을 맡아 공사를 해야 하는데 저 뒷산 흙이 바로 적격이라는 것이다. 은행 빚이 밀려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팔라고 하니 너무나 반가워서 판다고 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쓰기 시작했다. 조바심을 가지고 어깨 너머로 슬쩍슬쩍 보면서 얼마를 쓰고 있는지를 지켜보았다. 드디어 3자가 나오고 30만 불로 적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날 계약을 끝내고 드디어 30만 불을 받았다. 당장 은행 빚을 모두 갚았다. 그런데 3년이 지났는데 그 미국사람들이 다시 찾아와 그 지역이 관광지역으로 설정되어 흙 한 삽도 가지고 나가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다시 당신한테 그냥 돌려주고 싶으니까 받으라는 것이다. 원장은 너무나 어이가 없어 놀라 감사하다가 하고 돌려받았다. 결국 그 뒷산이 모하비 사막으로 갔다가 흙 하나 떨어트리지 않고 다시 돌아왔다고 말하면서 함께 웃었다.

■ 깊이 생각하기: 하나님은 움직이기 시작하시면 인간에게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 홍해가 갈라진 것, 애굽군사들이 모두 홍해 속으로 매장된 것, 만나, 메추라기, 요단강 갈라진 것, 여리고성 함락, 수많은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한 것, 예수님을 통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 그리고 현대사회로 들어오면서도 많은 크리스천들의 기도로 각종 고질병들이 고침을 받은 것 등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이다. 그러나 인간은 기적이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보통 하시는 일이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어떤 일이든지 행하신다.

■ 서로 나누기: 성경에 소개된 수많은 기적들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요? 나의 기도로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체험케 한 것이 있는가요? 나는 너무나 다급하여 기적을 이뤄달라고 기도했는데 지금까지 안 이뤄진 것이 있는가요? 하나님은 기적 말고 일상생활 안에서 늘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는가요? 진정한 기적은 무엇인가요?

■ 기도



## 제 100 과 편견

■하나님의 말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 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약 2:1-4).

< 예화 >

마하트마 간디는 학생 시절에 복음서를 진지하게 읽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을 고려했다고 썼다.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인도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있는 카스트 제도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어느 일요일 그는 근처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고 목사에게 기독교인이 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그가 성소에 들어갔을 때 안내자는 그에게 자리를 주지 않고 자기 동족들이 있는 자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제안을 받았다. 그날 이후로 간디는 교회를 떠나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기독교인도 카스트(신분 구분제도)가 있다면 나는 힌두교 인으로 남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내자의 편견 한마디가 간디를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히 멀어지게 만들었다.

■깊이 생각하기: 인간은 거의 누구에게든지 약간의 편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복장이 어스름하고 외모도 누추하게 생긴 사람이 예배 좌석에 앉아 있다면 그 자리를 은근히 피하려는 것이 보통 있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좀 생각을 바꾸면 오히려 누추하고 연약하게 보이는 사람이 홀로 앉아있으면 그 곁으로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그를 격려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것이다. 학교에서나 전철에서, 어느 모임에서든지 크리스천들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이 나를 편견의 눈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자. 우리들이 외국을 여행 나갔을 때 서구인들로부터 편견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지금도 많은 한국이민자들이 서구권에서 보이지 않게 무시를 당하

는 경우가 있다. 크리스천들이 차별하면 그들은 예수를 영원히 떠날 수 있다. 반대로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포용하면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다.

■ 서로 나누기: 나는 누구를 편견으로 대한 적이 있는가요? 나는 편견을 당한 적이 있는지요? 그때 나의 감정은 어떠했나요? 편견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성경에서 편견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보세요.

■ 기도

## 제 101 과 개의 순종

■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삼상 15:22).

< 예화 >

개 주인 아키발드 러틀리지는 산에서 일을 하려고 할 때 종종 개를 데리고 가곤 했다. 주인은 개에게 “여기 점심과 물통이 있으니 잘 지키고 있어”라고 부탁하고는 일에만 열중했다. 개는 주인의 부탁을 완전히 알아차렸다. 그런데 산 저편에서 불이 났기 시작하더니 바람을 따라 그가 일하는 쪽으로 불어오고 있었다. 불길은 개가 있는 쪽으로도 번져갔다. 화재가 진정된 후 주인은 개가 생각나서 급하게 달려와 보니 개는 죽어있었고 점심은 그 옆에 가지런히 놓여있었다. 그는 사랑하는 개가 자기의 말을 끝까지 지키므로 죽기까지 한 것을 생각하면서 흐르는 눈물을 억제할 수 없었다.

■ 깊이 생각하기: 온전한 순종에는 큰 희생이 수반된다. 그 개가 불길이 다가와 자기 몸을 태우고 있었을 때 그의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 그래도 그 개는 자기 몸보다 주인의 명령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몸이 채찍을 맞아 찢기고 기운이 없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12번이나 쓰러지셨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혔다. 머리에는 긴 가시가 날카롭게 박힌 가시관이 강하게 눌러졌다. 십자가 위에서 고통은 6시간이나 계속되었다. 하나님의 왕국확장은 순종과 희생으로 이뤄진다.

■ 서로 나누기: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에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요? 나는 성도 간에 어떤 방법으로 순종하는지요? 나는 신앙생활에서 순종하기 싫을 때가 있었는지요? 내 가정과 주변에서 순종 잘하는 사람에 대하여 나는 어떻게 느끼는가요?

■ 기도

## 제 102 과 타이타닉과 빙하

■ 하나님의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칠 돌에 부딪쳤느니라”(롬 9:30-32).

< 예화 >

1912 년 영국 리버풀에서 “침몰 불가” 타이타닉이 출시되었다. 너무 거만한 타이타닉은 안전과 구조적 무결점이라는 말에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한 하트라는 여성에게 영적인 불길한 느낌을 안겨 주었다. 이 여인은 호기심과 불안감이 섞인 묘한 감정을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거대한 여객선으로 올라탔다. 향해 내내 하트 부인은 재난이 닥칠 것을 예상하면서 밤잠을 못자고 깨어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엄청난 충돌 소리와 함께 배는 침몰하게 시작했다. 바다에 떠 있는 엄청난게 큰 빙하를 보지 못했던 것이다. 하트 가족은 재빨리 갑판위로 올라와 제일 먼저 구조선에 오르게 되었다. 그녀의 깊은 영감으로 인해 그 가족이 온전히 구원 얻은 것이다. 그날 밤 사망 한 사람은 모두 1,500 명이나 되었다.

■ 깊이 생각하기: 타이타닉호는 당대에 가장 큰 배며 침몰을 모르는 호화로운 여객선으로 역사적 무대에 출현했다. 모든 매스컴에 대서특필되면서 자랑스럽게 출항했다. 그 배가 출항하기 전에 앞에 가던 배가 빙하를 조심하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선장은 관심을 갖지 않았다. 결국 이 배는 한 여인의 영감대로 빙하 앞에 힘을 못 쓰고 바다로 수장되었다. 신앙적인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의 지식과 경험만을 의지할 때는 큰 손실을 얻게 된다.

■ 서로 나누기: 나는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 경솔하게 일을 시작했다가 손해를 본적이 있었는지요? 나는 내 인생길에서도 있을 수 있는 빙하를 어떻게 피해갈수 있는가요? 나는 고집과 교만으로 인해 큰 손해를 본적이 있는가요? 기도 중에 예감이 이상하게 느낀 것들이 있었는지요?

■ 기도

## 제 103 과 잿더미에서 찾은 결혼사진

■ 하나님의 말씀: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네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잠 5:15-19).

< 예화 >

안기와 대빛은 결혼한지 6주년이 된 해에 집에 화재가 발생하여 모두 타 버렸다. 그런데 그 잿더미 위에서 안디는 무엇인가를 세심하게 찾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의 결혼 앨범이었다. 안기는 드디어 그 앨범을 찾아냈다. 그는 기쁨으로 소리치며 그의 남편 대빛에게로 달려갔다. 그런데 대빛도 무릎 꿇고 무엇인가를 주섬주섬 찾아 들고 있었다. 한쪽이 타버린 사랑 편지 조각들을 모아 상자에 넣고 있었던 것이다. 안디는 남편의 그 모습을 볼 때 가슴이 뭉클하면서 우리는 서로를 위한 존재라는 확신에 압도당했다. 집이 모두 타버린 비극의 현장에서 안디의 마음속에는 우리는 물질적 손실 보다는 우리의 인생 전부가 손실 될번 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잿더미에서 찾은 결혼 앨범과 몇 장의 사랑편지를 들고 “우리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어요”라고 말한다.

■ 깊이 생각하기: 결혼생활이 아무리 오래가도 아내는 항상 젊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노루와 같고 그의 품에 족하고 즐거워하라고 잠언은 말하고 있다. 어느 가정은 끝까지 부부간의 정을 되살리면서 항상 신선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부부가 있다. 부부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추억과 첫사랑의 재생산은 재산을 잃은 것 보다 더 귀하다. 어떻게 살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부부가 가끔씩 이런 고백을 하며 살 수 있을까. 아내는 남편을 향하여는 “수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남편은 아내를 향하여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 서로 나누기: 나는 아내를 향하여 어떤 최상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나는 남편을 향하여 어떤 최상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나는 젊었을 때 사진을 우연히 발견하고 새삼스럽게 아름다운 추억을 나눠 본적이 있는가요? 나는 부부간의 사랑이 전 재산보다 더 귀하다는 말을 어떻게 느끼는가요?

■ 기도

## 제 104 과 한 가지씩 하라

■하나님의 말씀: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가 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 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 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눅 10:39-42).

### < 예화 >

모든 인간의 약점은 “한 번에 너무 많은 일을 하려는 것”이라고 Henry Ford는 말했다. “그것들은 노력을 분산시키고 방향을 잃게 합니다. 서두르고 서두르면 시간들이 낭비됩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법을 찾기 전에 모든 잘못된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믿고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때때로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하고 싶은 12 가지 일을 가지고 하루를 출발합니다. 그러나 일을 하다보면 그것들은 한 번에 다 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포드에게 이러한 잘못된 과도한 업무욕심을 어떻게 처리 했는지 물었을 때 “나는 밖으로 나가서 집 주위를 다니면서 하고 싶어 하는 많은 일들, 과도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들을 일단 포기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은 맑아지면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먼저해야하는지를 살피게 됩니다.”

■깊이 생각하기: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산다. 학생, 직장인, 기술자, 노동자, 공무원, 사업가 등 바쁘게 살다보면 일 년이 어느덧 빨리 지나간다. 그러다 자신을 향하여 내가 언제 벌써 이렇게 나이가 먹었지 라고 놀란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많은 일을 구상하여 한꺼번에 하려는 생각을 버리라고 말씀하셨다. 특별히 크리스천들은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장 먼저 확보해야 영이 산다. 많은 사람들이 항상 바쁘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룬 것은 별로 없음을 한탄한다. 착실하게 한 가지 직업에만 열정을 쏟는 사람들이 많다. 가업을 이어가면서 행복하게 지내

는 사람들을 존경한다. 오늘도 많은 것을 계획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전화하고 만나고 음식 먹고 대화를 나누지만 지나고 나면 이렇다하게 남는 것이 별로 없을 때가 많다. 나의 일과가 하나님나라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인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

■ 서로나누기: 내가 바쁜 한 주간을 보내고 조용히 지난 주간을 돌이켜 볼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요? 나는 바쁠 때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어떻게 갖는가요? 내가 과거에 바쁘게 일하면서 일궈 놓은 일들을 오늘날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요? 나는 앞으로 바쁜 일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싶은가요?

■ 기도



## 제 105 과 내 새 차 BMW! 내 롤렉스!

■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마 16:26).

< 예화 >

눈보라가 치는 어느 날 새 차 BMW 세단을 타고 산악 도로를 달리던 잘 나가는 젊은 투자 은행가에게 불운이 닥쳤다. 길이 좋지 않은 산길을 달리다가 급회전하면서 그는 통제력을 잃었다. 차는 순식간에 가파른 절벽 아래로 구르기 시작했다. 마지막 순간에 그는 안전벨트를 풀고 문을 열고 차에서 뛰어 내려 협곡 바닥으로 피했다. 차는 곧 불에 타면서 폭발했다. 그는 목숨을 걸고 그 자리를 벗어났지만 그는 끔찍한 부상을 입었다. 그는 뛰어 내릴 때 어깨가 문에 걸려 크게 부상을 입게 되었다. 지나가는 트럭 운전사가 백미러로 사고를 보고 차를 정지시키고는 급히 사고 현장으로 내려갔다. 그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 사고 운전자는 불타는 자기차를 바라보고 있었다. 놀랍게도 사고를 당한 그 은행가는 자기의 부상을 인식하지 못하고 “My BMW! My New BMW!”를 연속으로 외치고 있었다. 트럭 운전사는 은행원의 어깨를 가리키며 “당신은 그 차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당신 팔을 찾아 야해요. 외과 의사가 다시 꿰뿔 수 있을지 몰라요!” 은행원은 팔이 떨어진 곳을 바라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 소리쳤다. “오 안돼! 내 롤렉스! 나의 새로운 롤렉스!”

■ 깊이 생각하기: 사람이 큰 사고를 당했을 때 인간의 생명이 더 중요할까요? 주변에 널려진 소유물이 더 중요할까요? 아마도 개중에는 자기생명의 위험보다는 자기의 귀중한 소유물을 더 움켜쥐는 사람이 있다. 불이 난 집에서 귀중품 하나라도 더 가지고 나오다가 큰 사고를 당하기도 한다. 우리는 평상시에 인간의 영혼문제와 육적인 이익문제 사이에서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다. 상대방과 어떤 문제로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가 불신자이거나 신자이건 간에 그의 영혼이 실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언행에 조심하고 희생도 감수해야 할 때가 있

다. 크리스천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무엇이 더 귀한 것인가를 가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 세상을 다 준 다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면 끝까지 아니어야한다. 죽어가는 마당에서 내 BMW를 찾고 내 롤렉스 시계를 찾았다는 이야기는 남에 이야기가 아닌 것 같다.

■ 서로 나누기: 나는 갑자기 큰일을 당했을 때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요? 누가 돈을 억만금 준다고 하면서 나쁜 일을 부탁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돈을 생명보다 더 앞세우는 이 세상에서 나의 가치관에 어떤 약점은 없는지요?

■ 기도

\* 우리 모두가 믿음의 승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